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국제보고서 제1권 발간 기념

한-OECD 유아교육·보육 교원 정책 국제세미나

*Launching Event for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 일시 | 2019. 10. 25(금) 10:10-12:40

| 장소 |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

| 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Time	Sessions	Moderator/Presenter
Moderator: Mugyeong Moon Vice-Chair & National Coordinator of OECD ECEC Network, KICCE		
10:10-10:45 ('35)	Registration	
10:45-11:00 ('15)	Welcoming Rem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un-Hee Baek</i> President, KICCE
	Congratulatory Rem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ndreas Schleicher</i> Director for the Directorat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 <i>Hyung Sook Cho</i> President,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11:00-11:40 ('40)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Yuri Belfali</i> Head of Division,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
11:40-12:00 ('20)	Presentation 2: TALIS 3S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unseol Kim</i> TALIS 3S NPM of Korea, National Coordinator of OECD ECEC Network, KICCE
12:00-12:30 ('30)	Panel Discu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unhye Park</i> OMEP World President/ Professor, Ewha Women's University • <i>Seungha Lee</i> Executive Director,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 <i>Yoon Kyung Choi</i> Former TALIS 3S NPM of Korea, KICCE
12:30-12:40 ('10)	Wrap Up & Closing	

시간	내용	사회자/발표자
사회자: 문무경 OECD ECEC Network 부의장 및 국가조정관/육아정책연구소		
10:10-10:45 ('35)	등록	
10:45-11:00 ('15)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국장 • 조형숙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회장/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1:00-11:40 ('40)	주제발표 1: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uri Belfali OECD 유초중등교육과장
11:40-12:00 ('20)	주제발표 2: TALIS Starting Strong 한국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설 TALIS 3S 한국 연구책임, OECD ECEC Network 국가조정관/육아정책연구소
12:00-12:30 ('30)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은혜 OMEP 세계유아교육기구 세계회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이승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총무이사/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최윤경 TALIS 3S 한국 전 연구책임/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
12:30-12:40 ('10)	폐회	

» 주제발표1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Yuri Belfali Head of Division,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	5
» 주제발표2 TALIS Starting Strong 한국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김은설 TALIS 3S 한국 연구책임, OECD ECEC Network 국가조정관/육아정책연구소	29
» 토 론	
박은혜 OMEP 세계유아교육기구 세계회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7
이승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총무이사/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9
최윤경 TALIS 3S 한국 전 연구책임/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	51



축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백선희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며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OECD의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국제보고서 제1권이 발간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OECD의 Yuri Belfali 유초·중등교육 과장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교원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생애초기 영유아 교육·보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근무하는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보육 커리큘럼이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OECD에서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원 및 교육·보육 현장의 질을 평가하고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TALIS Starting Strong Survey를 기획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이 참여하여 대규모 국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19년 오늘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국제보고서 제1권,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Starting Strong Survey 2018의 결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ECEC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국제수준의 연구이기에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OECD의 견해가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분야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교육부와 함께 이 국제적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NPM(National Project Manager)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실이 잘 맺어져 OECD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결과물에 대한 공식적 발표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Yuri Belfali OECD 유초등교육과장님과,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국장님, 세미나의 공동개최를 맡아 도움을 주신 영유아교원교육학회 조형숙 회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화여자대학교 박은혜 교수님, 중앙대학교 이승하 교수님, 우리 연구소의 최윤경 박사님, 그리고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연구진,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의 국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고, 그 성과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미있는 정책적 논의로 발전되어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백선희

축 사

안녕하십니까?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사업보고를 위한, 2019년 한-OECD 유아교육·보육 교원 정책 국제 세미나를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님과 세미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가들이 영유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 역시 누리과정의 무상교육 시행으로 사실상의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많은 근무자들은 초·중등학교 근무자들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처우, 전문성 측면에서 동등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ECEC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이 거대한 국제프로젝트에서,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 및 전문성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영유아교사 교육 및 교사지원에 대한 실태,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ECEC 교원의 질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원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발전 방향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역시, 유아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과 직결된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술적 탐구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학문과 실천의 영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본 프로젝트의 성과가 연구에 참여한 9개국을 비롯하여, 여타 다른 국가들의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자 분들과, 참석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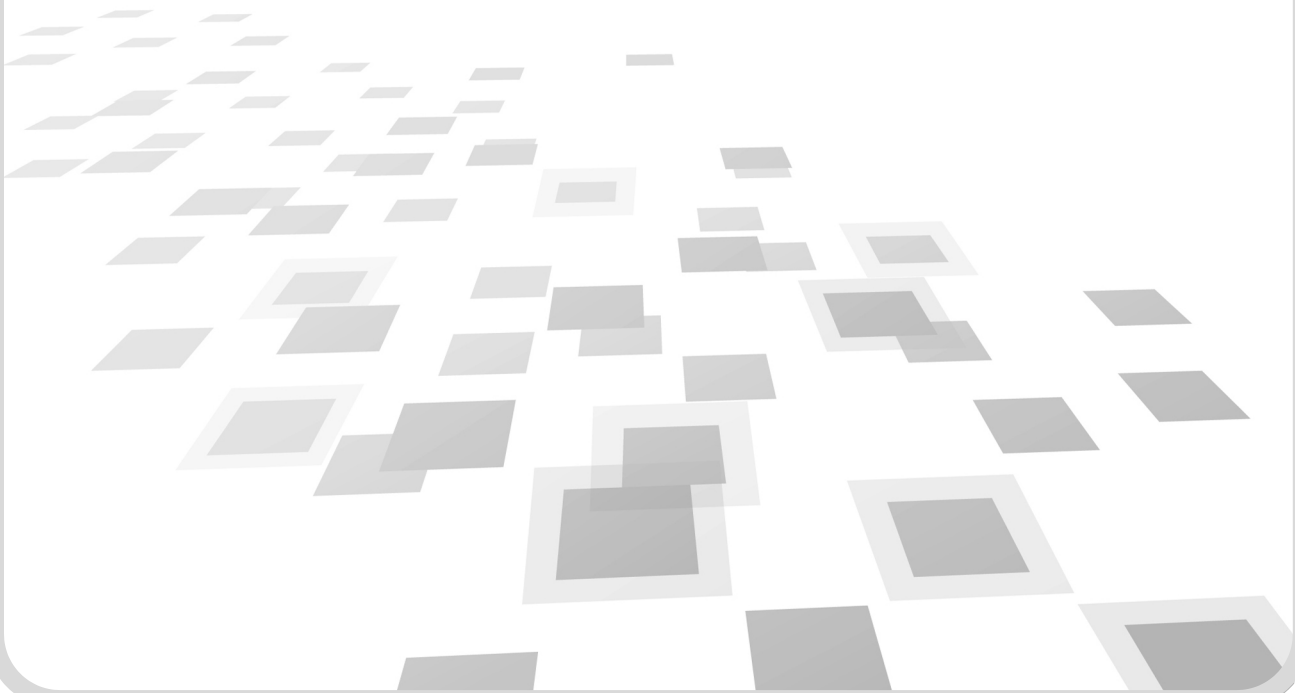
2019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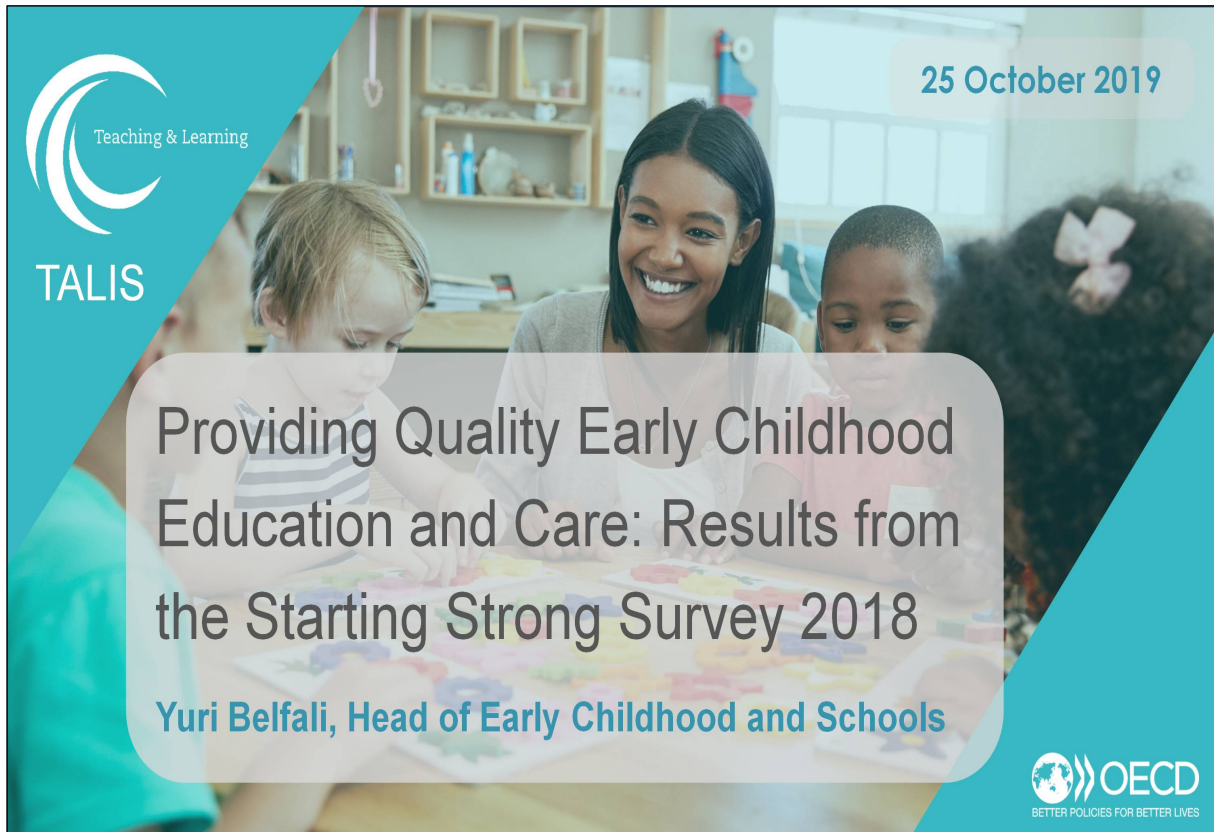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 조형숙

주제발표1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Yuri Belfali Head of Division,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





Teaching & Learning

TALIS

25 October 2019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Yuri Belfali, Head of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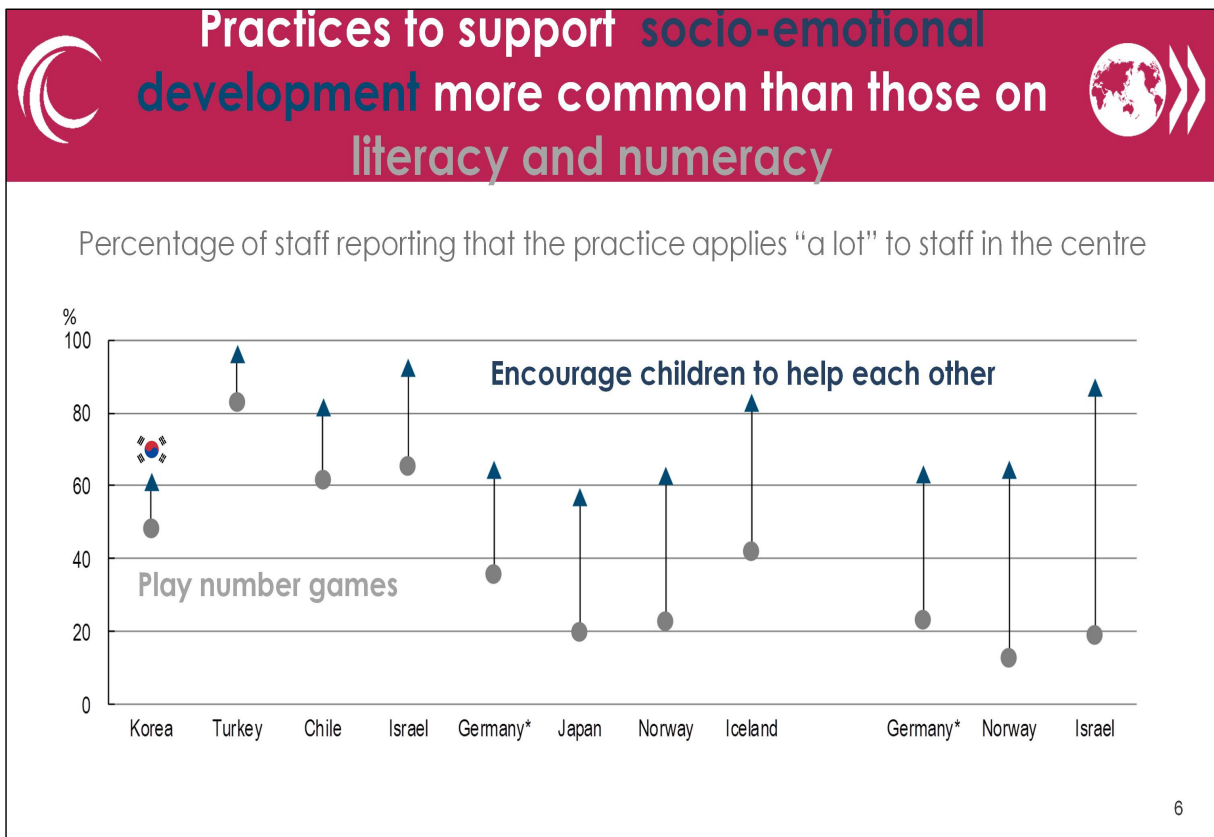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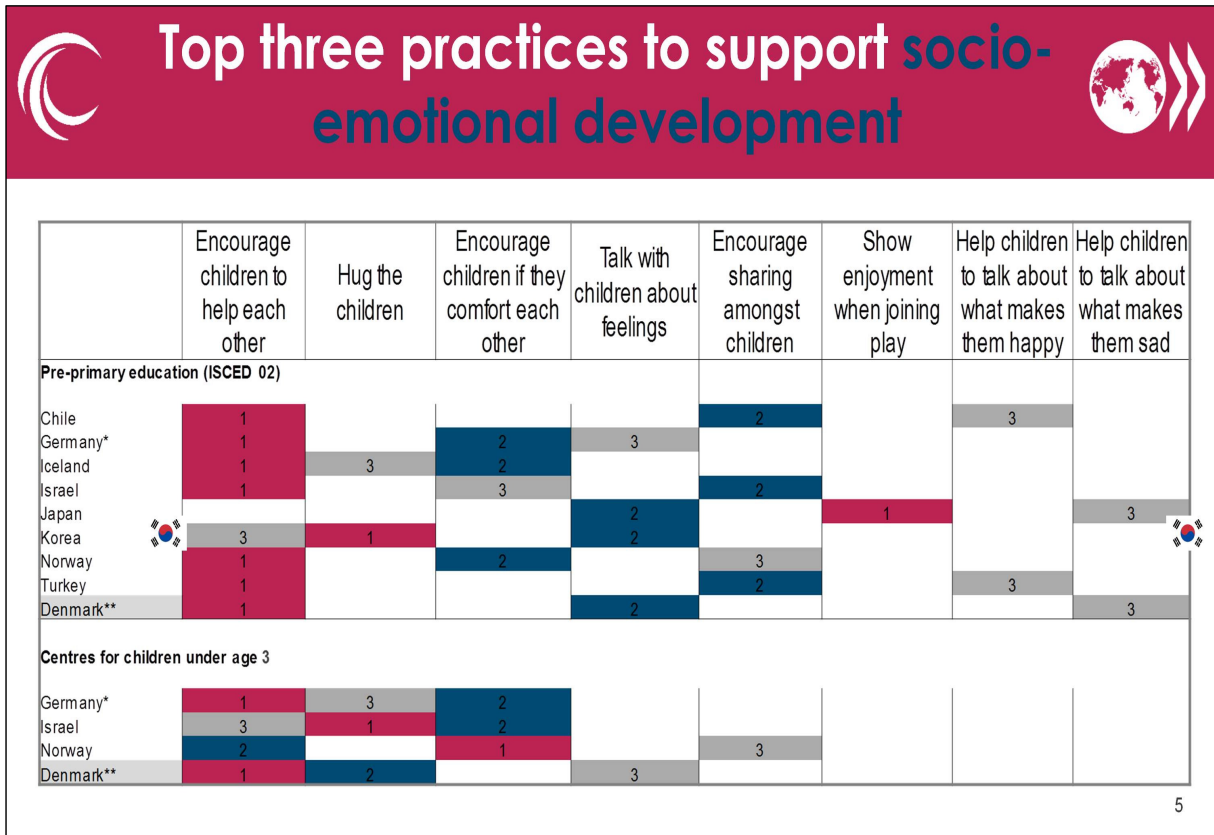
What is TALIS Starting Str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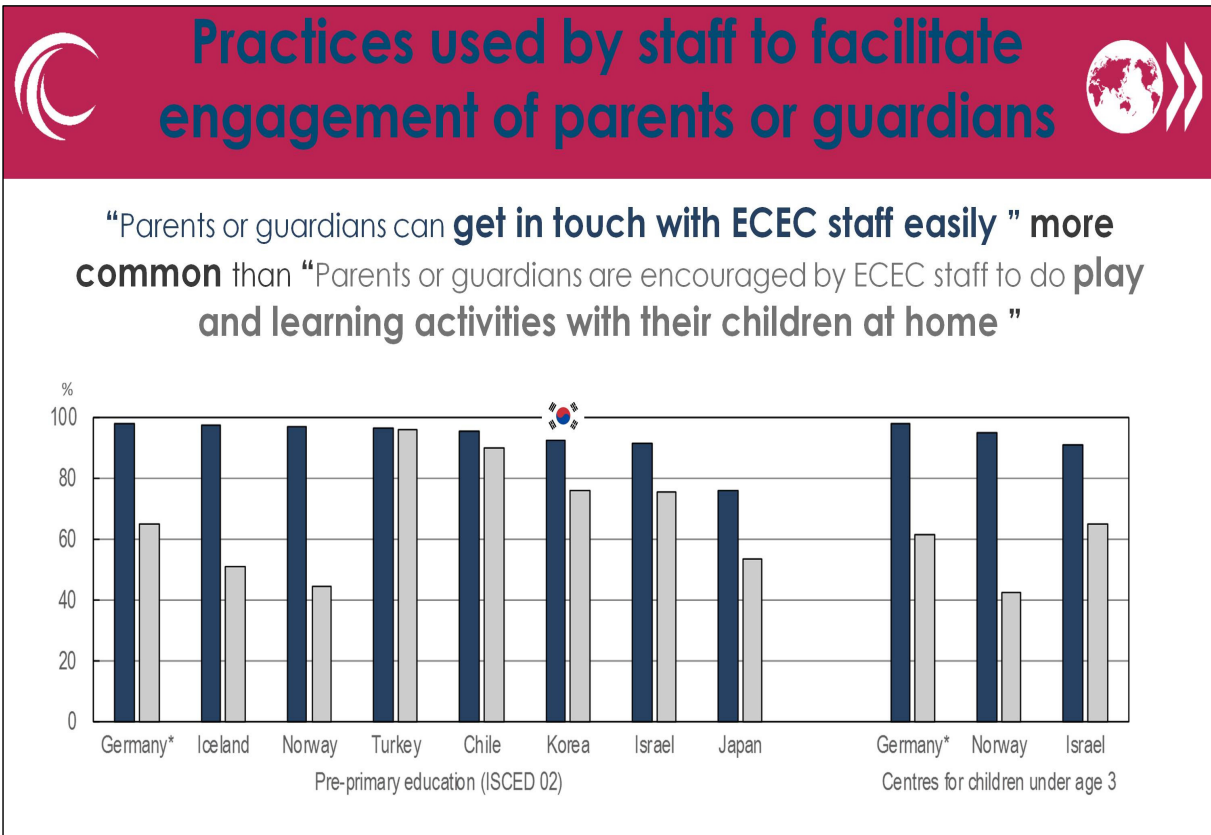
-  An international survey of staff and lead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Ask staff and leaders about their working practices; training and satisfaction; views about the sector
-  9 countries: Chile, Denmark, Germany, Israel, Iceland, Japan, Korea, Norway, Turkey
- 2 levels of education: pre-primary (all countries); setting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3 (4 countries)



Top three practices to support 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development

	Sing songs or rhymes	Use books/picture books	Encourage children to talk to each other	Position themselves at the children's height	Help children to use numbers or to count	Model the correct word rather than correcting the child directly	Rephrase or recite statements	Refer to groups of objects by the size of the group
Pre-primary education (ISCED 02)								
Chile	2	3			1			
Germany*	1	3	2					
Iceland	1	2	3					
Israel	1		2		3			
Japan			3	1			2	
Korea 	1	3		2				
Norway	1		2			3		
Turkey	1	2						3
Denmark**	2		1			3		
Centres for children under age 3								
Germany*	1	2	3					
Israel	1	2		3				
Norway	1	2				3		
Denmark**	1	2				3		







With a specific group of children (target group), staff in **Korea** “always or most always”:

22% Adapt activities to differences in children's cultural background

34% Give different activities to suit different children's level of development

To adapt to children's interests and needs

Behavioural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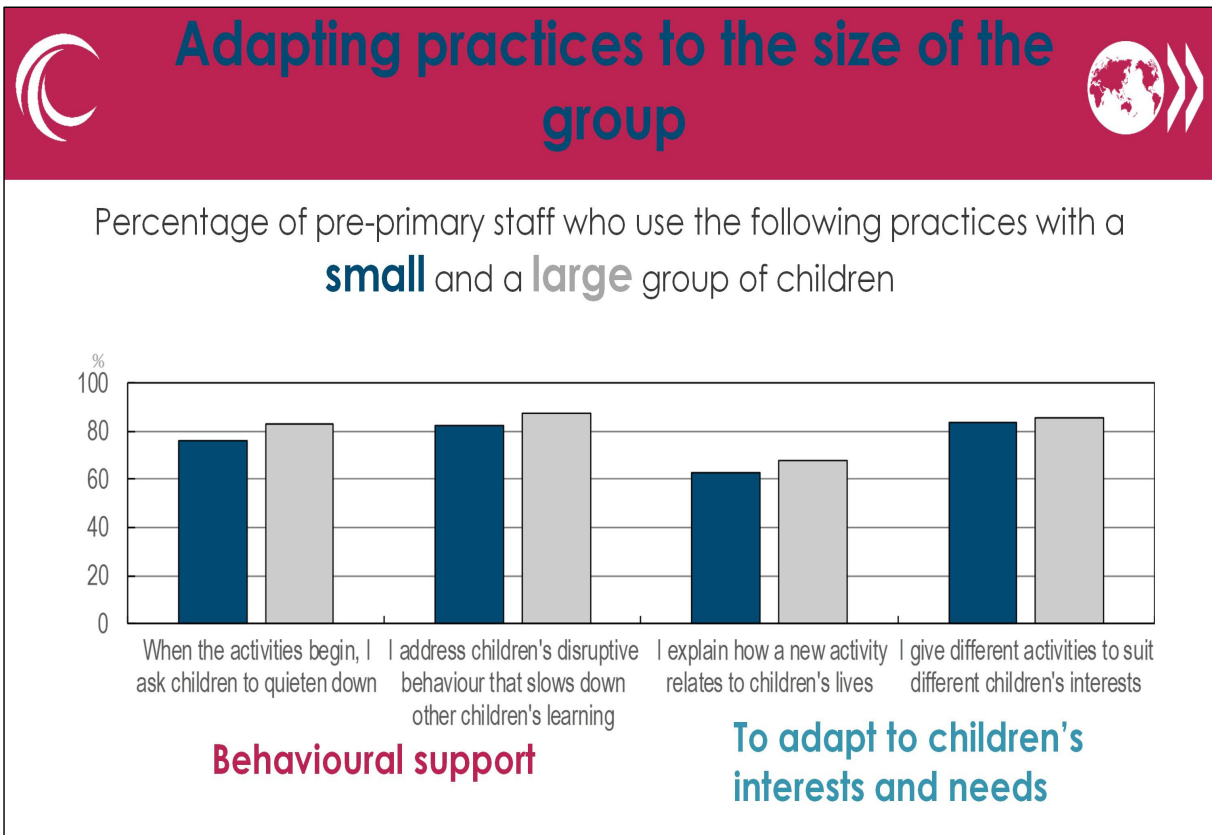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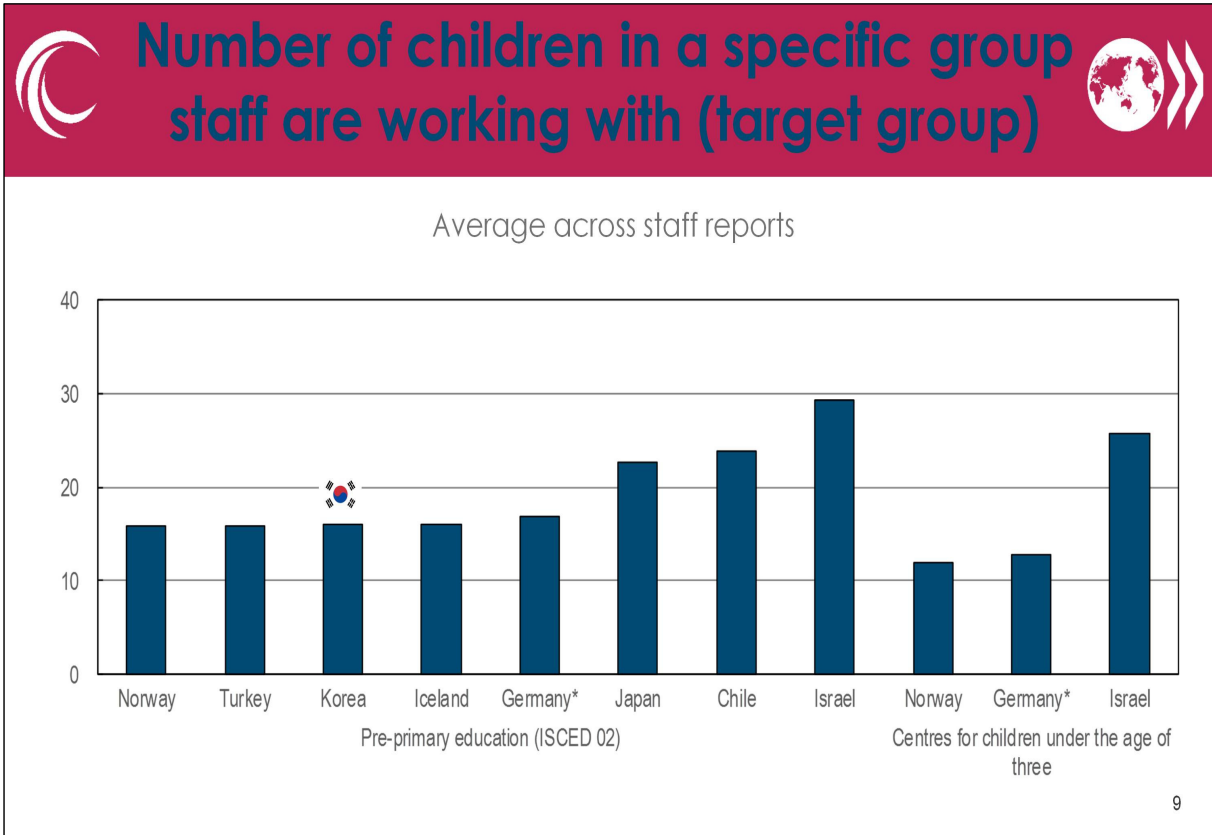
Help children understand the consequences if they do not follow the r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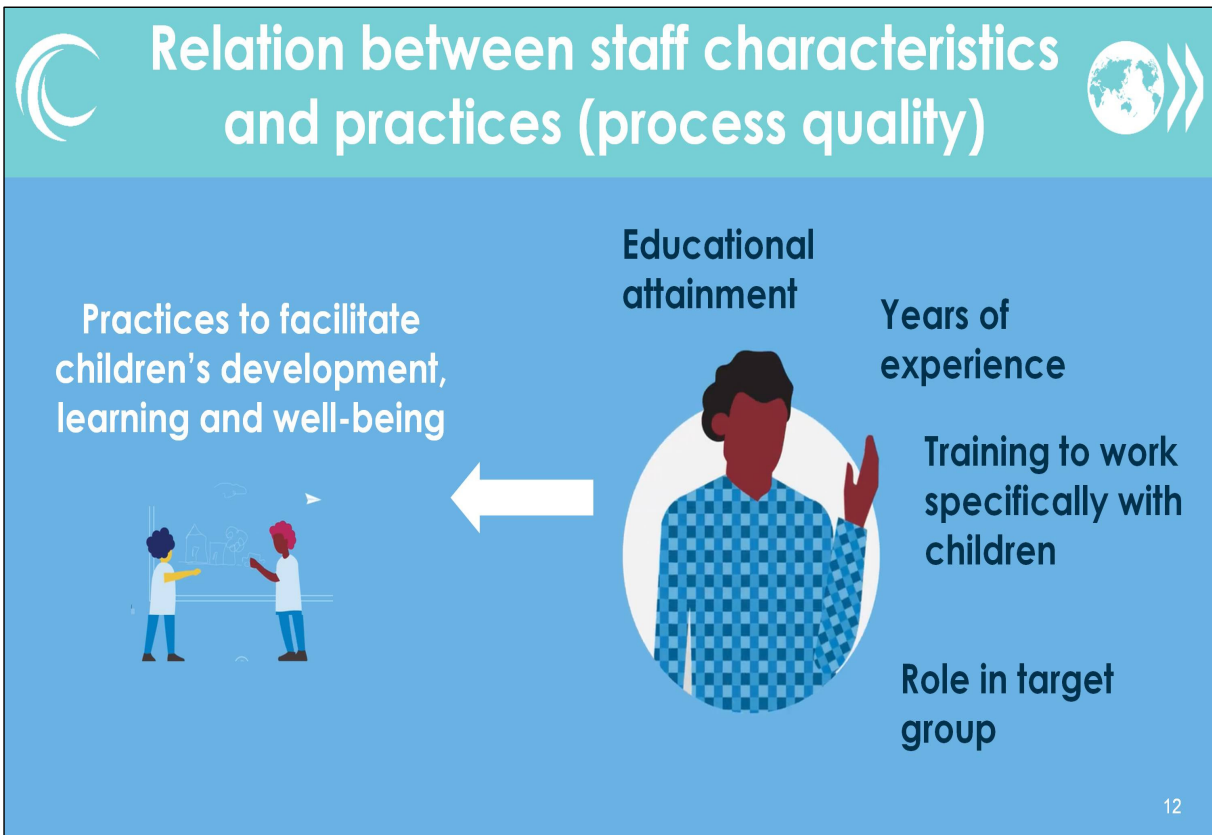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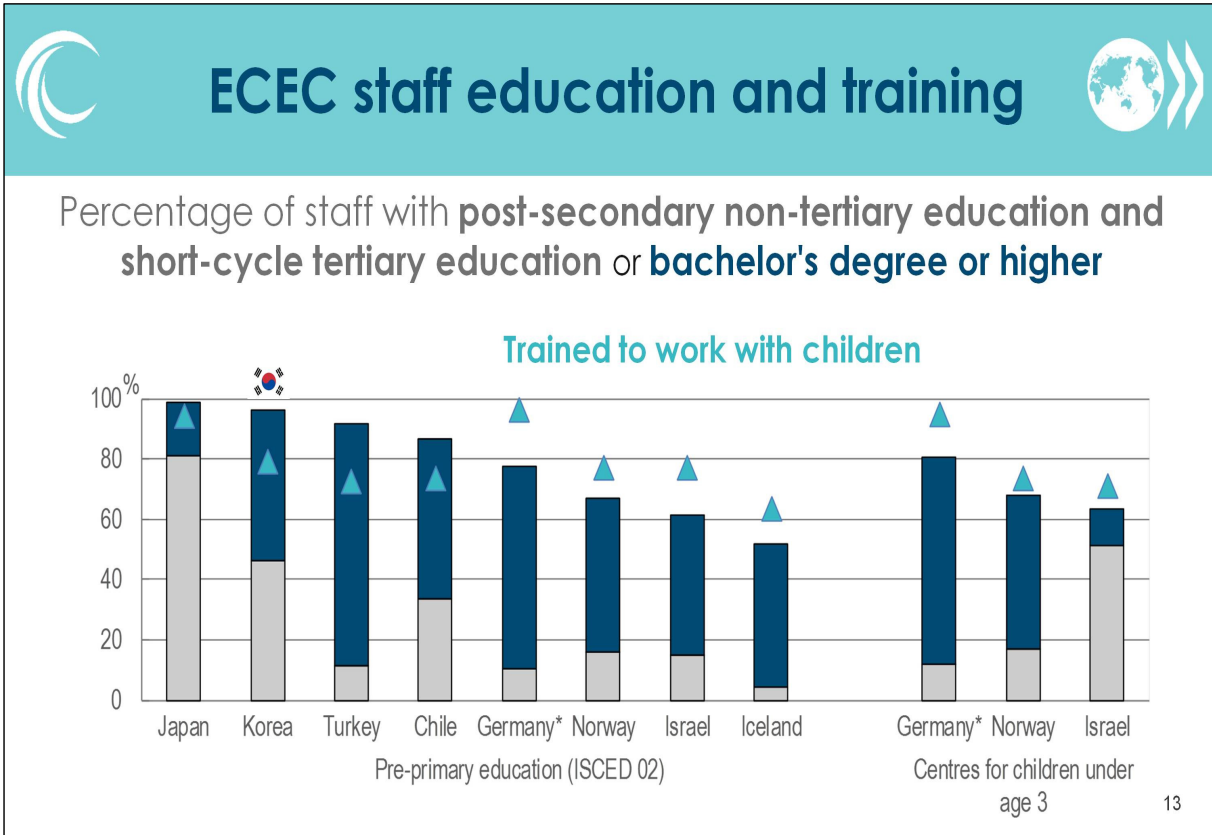
Help children to follow the rules

6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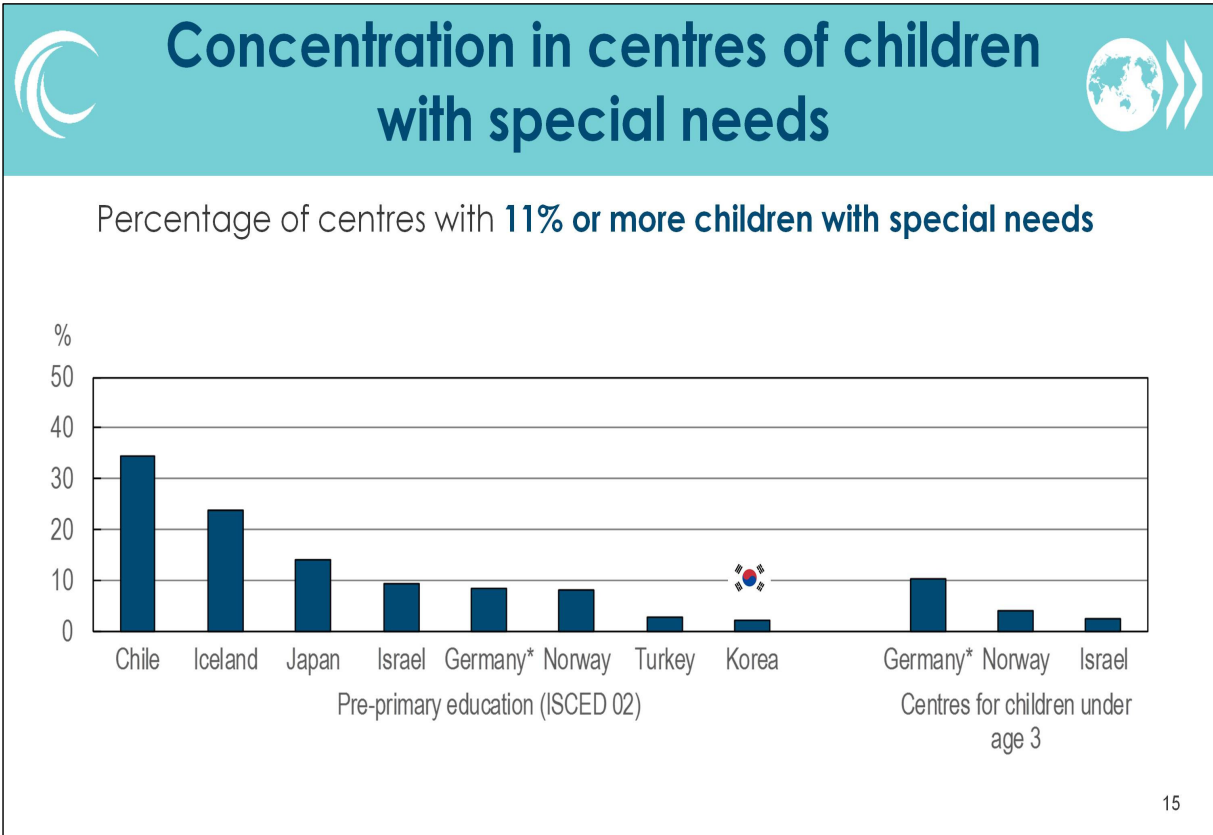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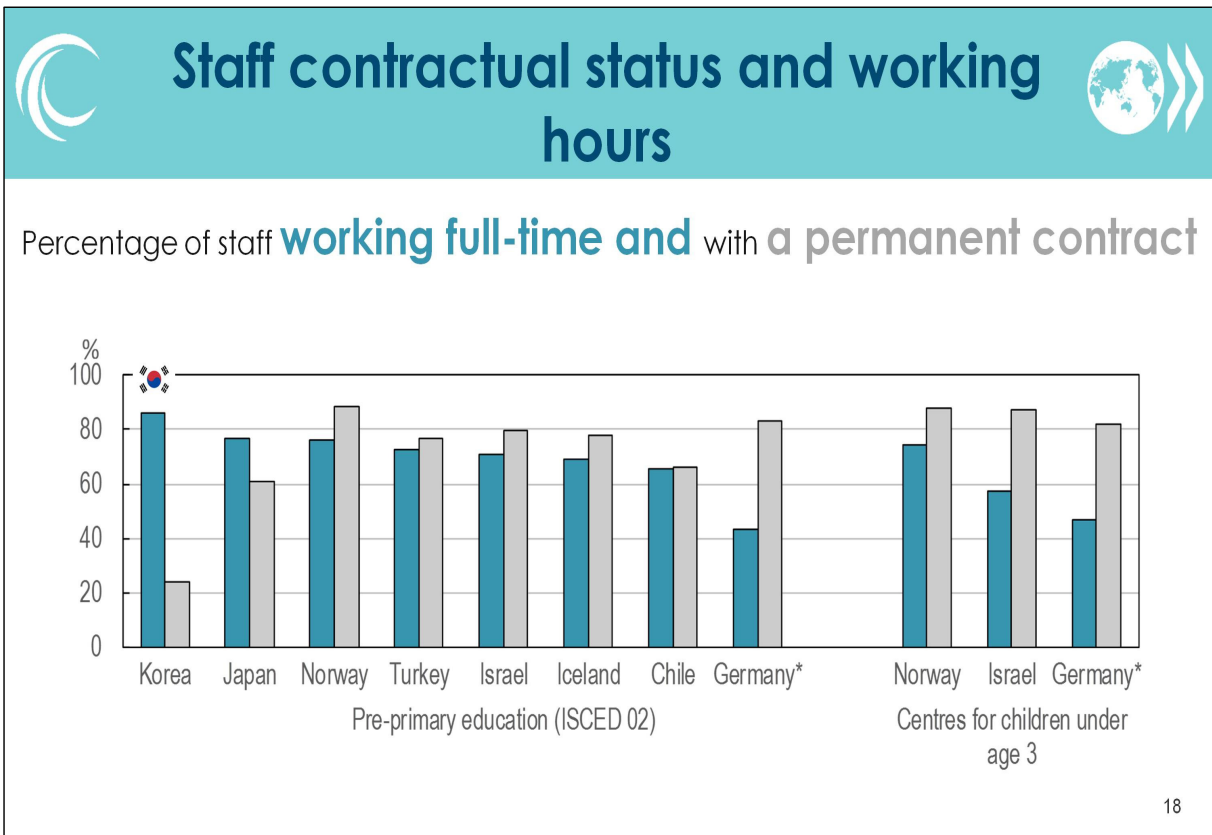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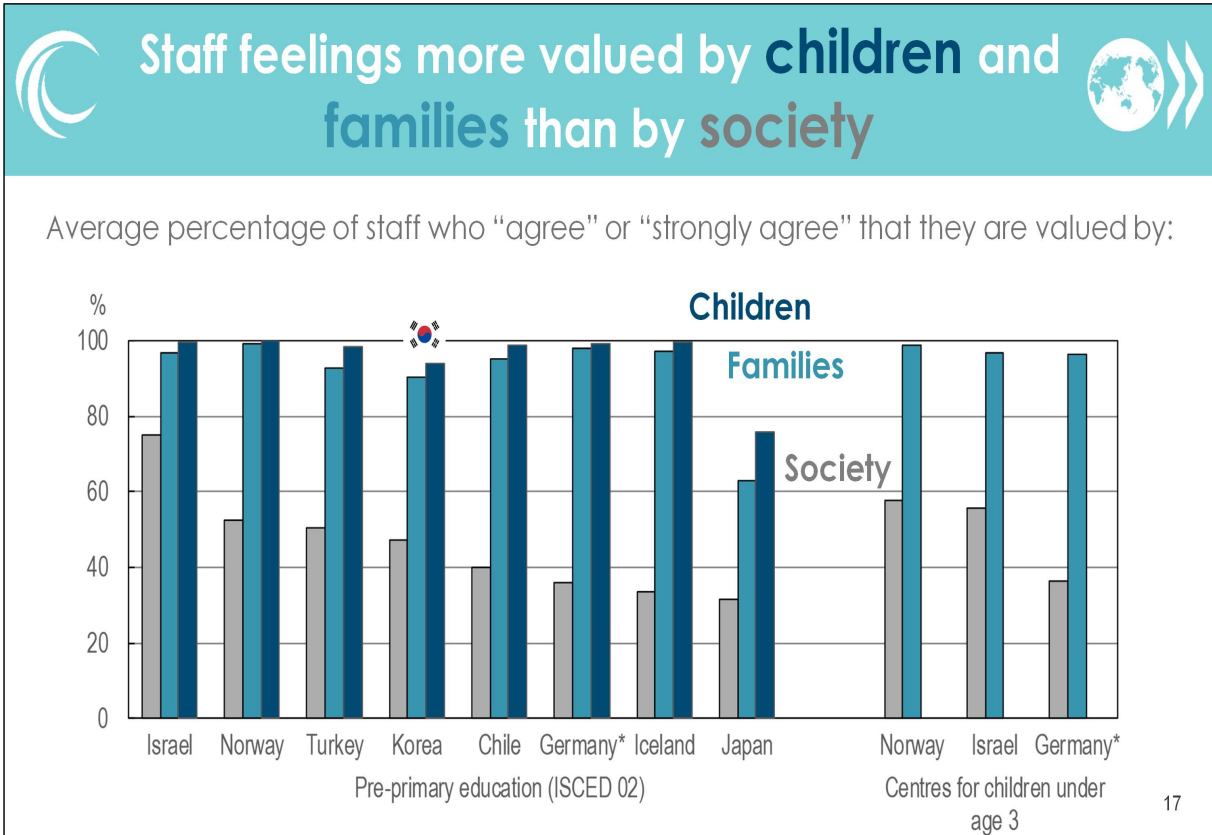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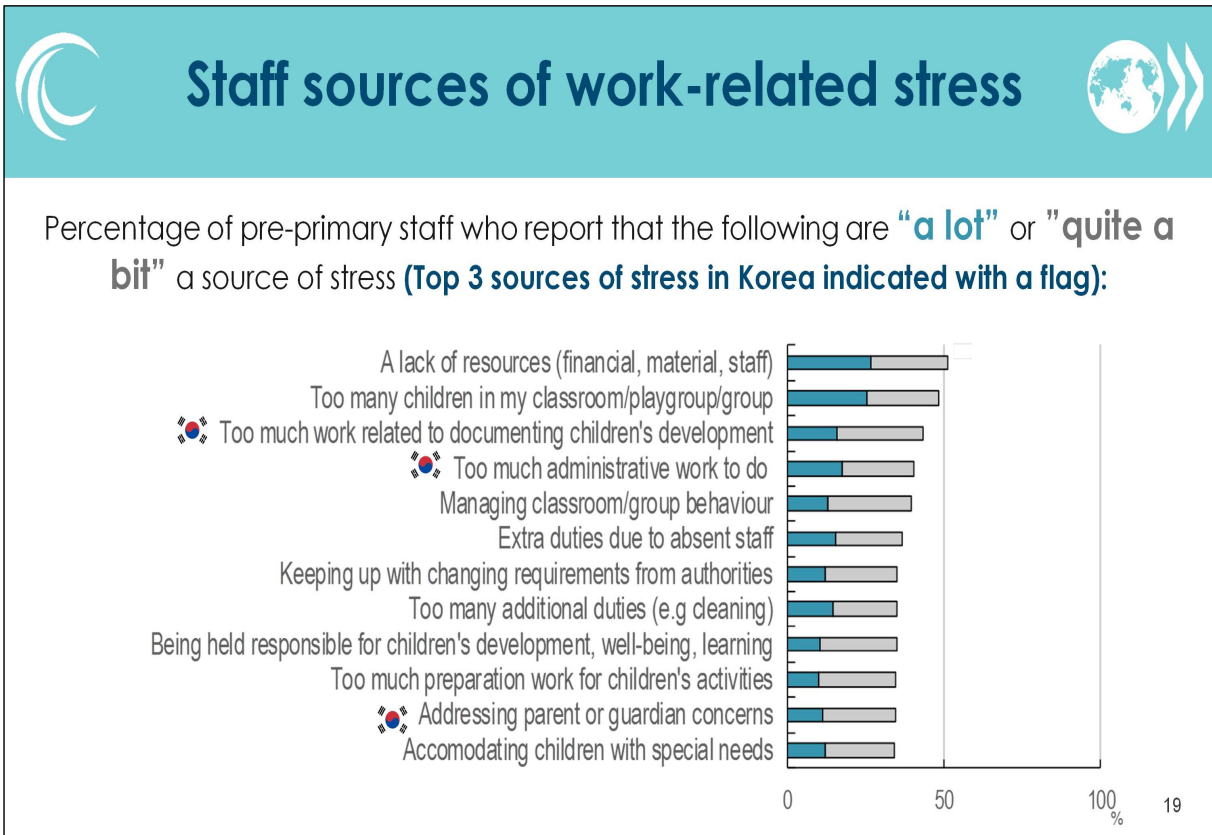


Top three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ual language learners	Facilitating creativity	Working with parents	Group management	Children from diverse backgrounds	Facilitating play	Child-development	Facilitating learning in literacy	Facilitating children's transition
Pre-primary education										
Chile	1	2								3
Germany*	1	2		3						
Iceland	1	2			3					
Israel	1		2					3		
Japan	1			2				3		
Korea	1		1	2			3			
Norway	1	2				3				
Turkey ³	1		3			2				
Denmark**	1	3							2	
Centre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3										
Germany*	1			2				3		
Israel	1		3					2		
Norway	1	2				3				
Denmark**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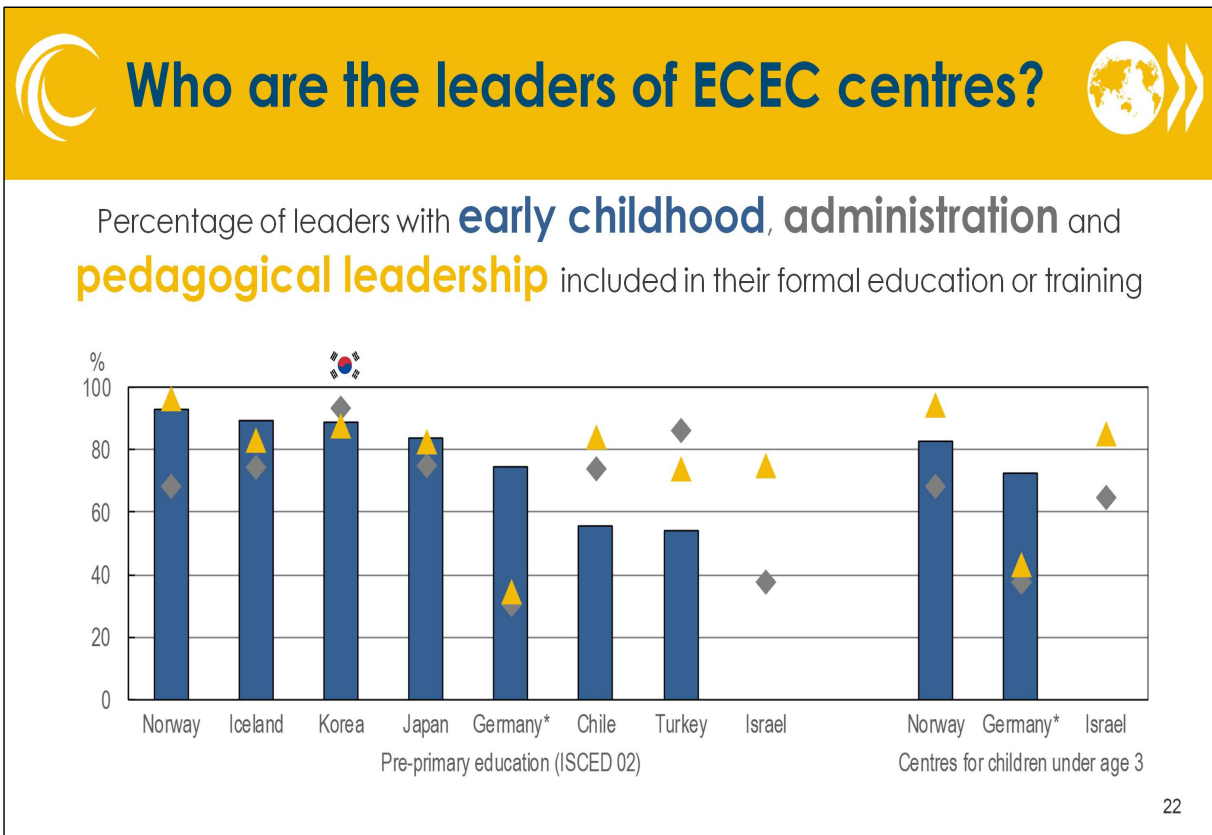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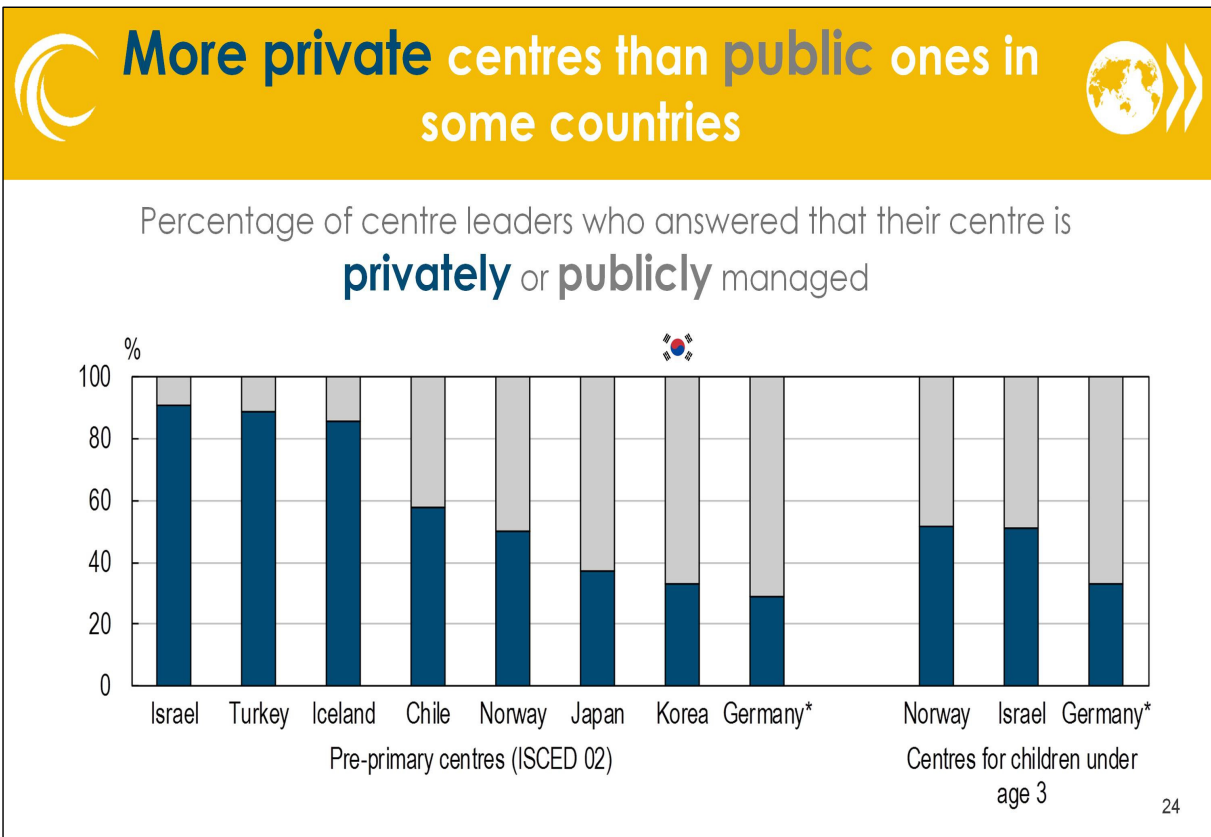
Top three staff spending prio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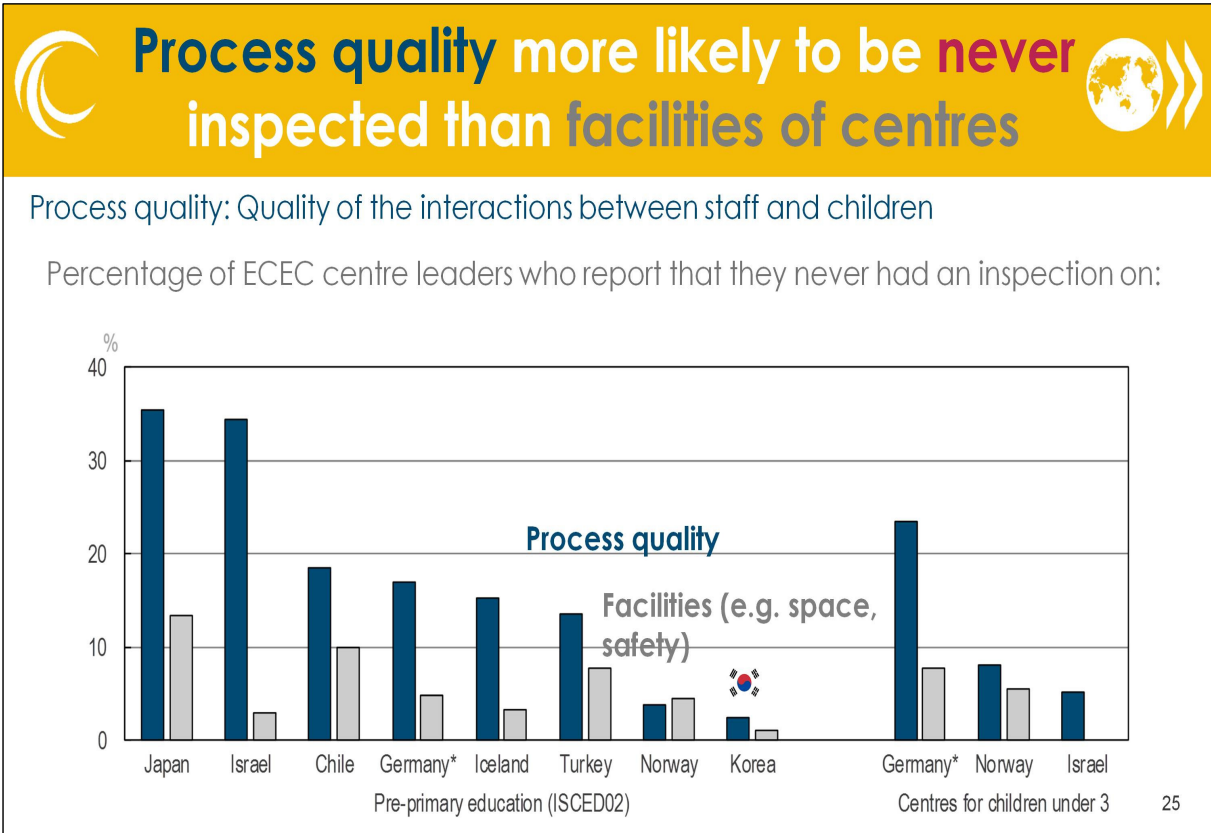
	Reducing group size by recruiting more staff	Improving ECEC staff salaries	Support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High quality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staff	Reducing ECEC staff's adm. load by recruiting more staff	Investing in toys, material, and outdoor facilities	Improving ECEC buildings and facilities	Supporting children from disadvantaged or migrant backgrounds
Pre-primary centres								
Chile		3	1	2				
Germany*	1	2	3					
Iceland	3	1	2					
Israel	1	2	3					
Japan	3	1			2			
Korea	3	1			2			
Norway	1		2	3				
Turkey				3		1	2	
Denmark**	1		2	3				
Centres for children under age 3								
Germany*	1	2	3					
Israel	2	1		3				
Norway	1		2	3				
Denmark**	1		2	3				



Top three barriers to leaders' effect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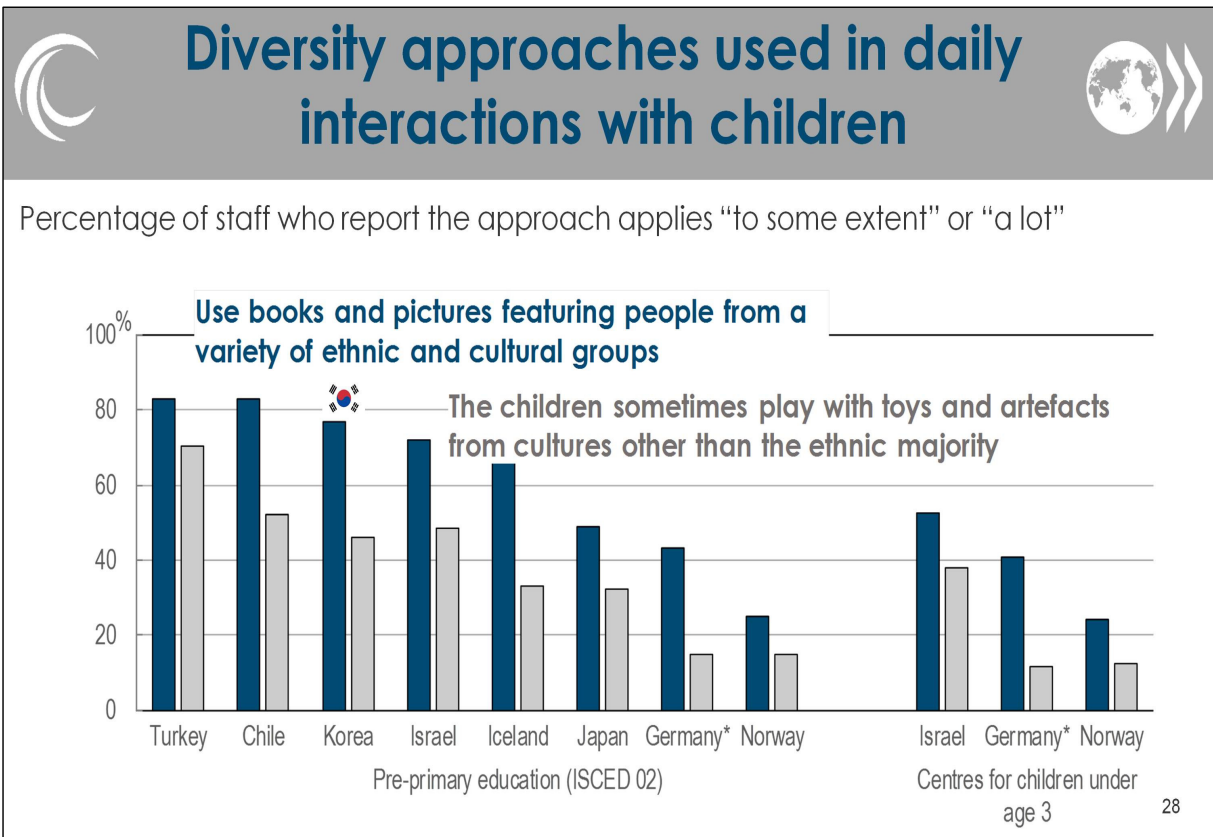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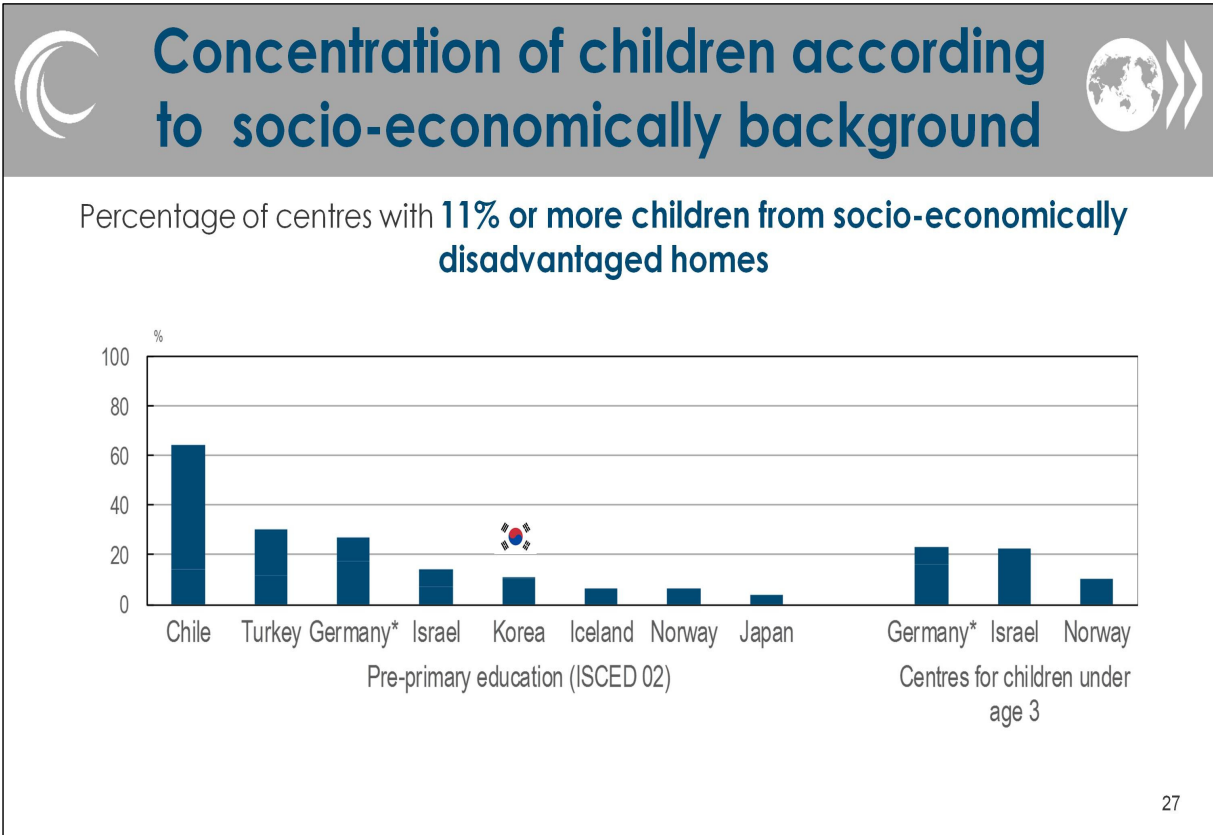
	Inadequate ECEC centre budget and resources	ECEC staff absences	ECEC staff shortages	Government regulation and policy	Lack of parent or guardian involvement and support	Lack of opportunities/support for ECEC staff's prof. dev.	Lack of opportunities/support for my own prof. dev.
Pre-primary centres							
Chile	3				1	2	
Germany*		1	2	3			
Iceland	3	1	2				
Israel ¹	1	a	a	2	3	a	
Japan	2	3	1				
Korea	3		2	1			
Norway	2	1	3				
Turkey	1				2	3	
Denmark**	1	2		3			
Centres for children under age 3							
Germany*		1	2	3			
Israel	3	2	1				
Norway	2	1		3			
Denmark**	1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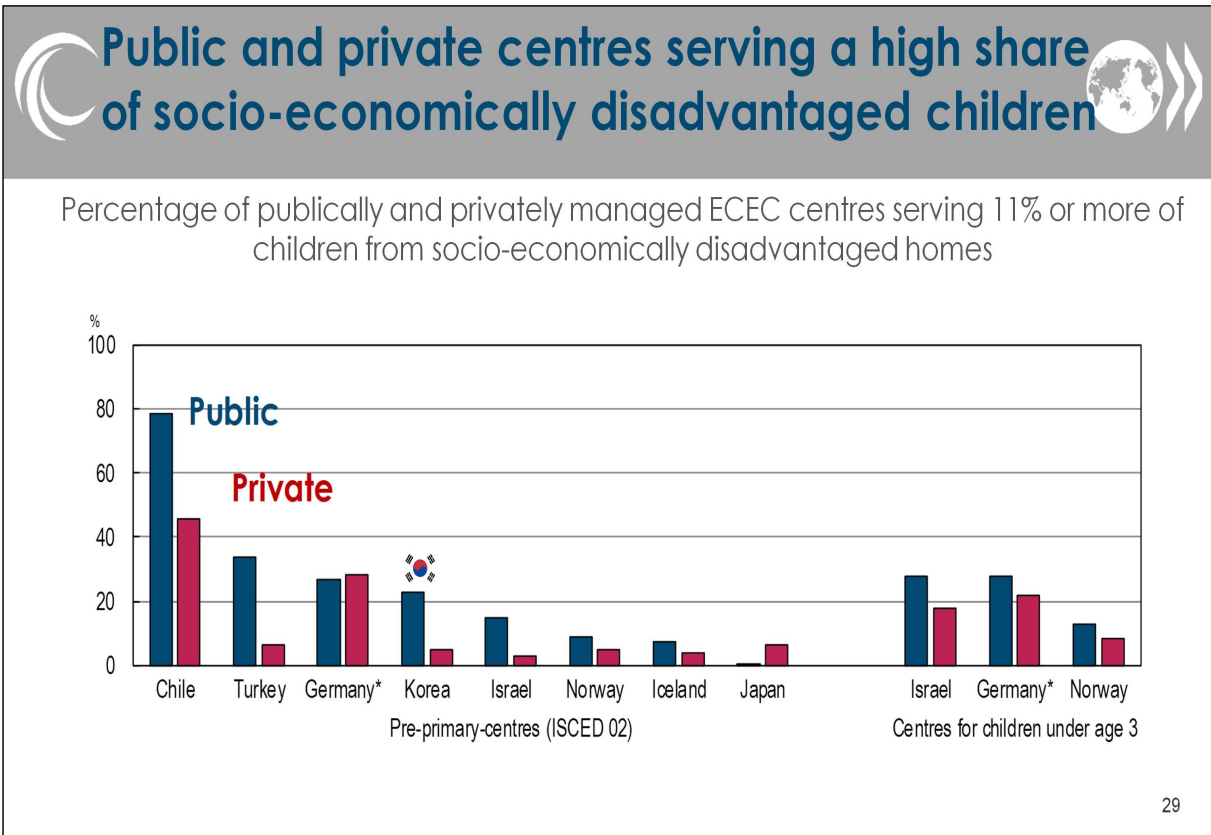




Equity and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hat do we learn from TALIS Starting Strong?






Mitigating or enhancing inequalities through resources allocated to centres?

Comparing centres with large and small share of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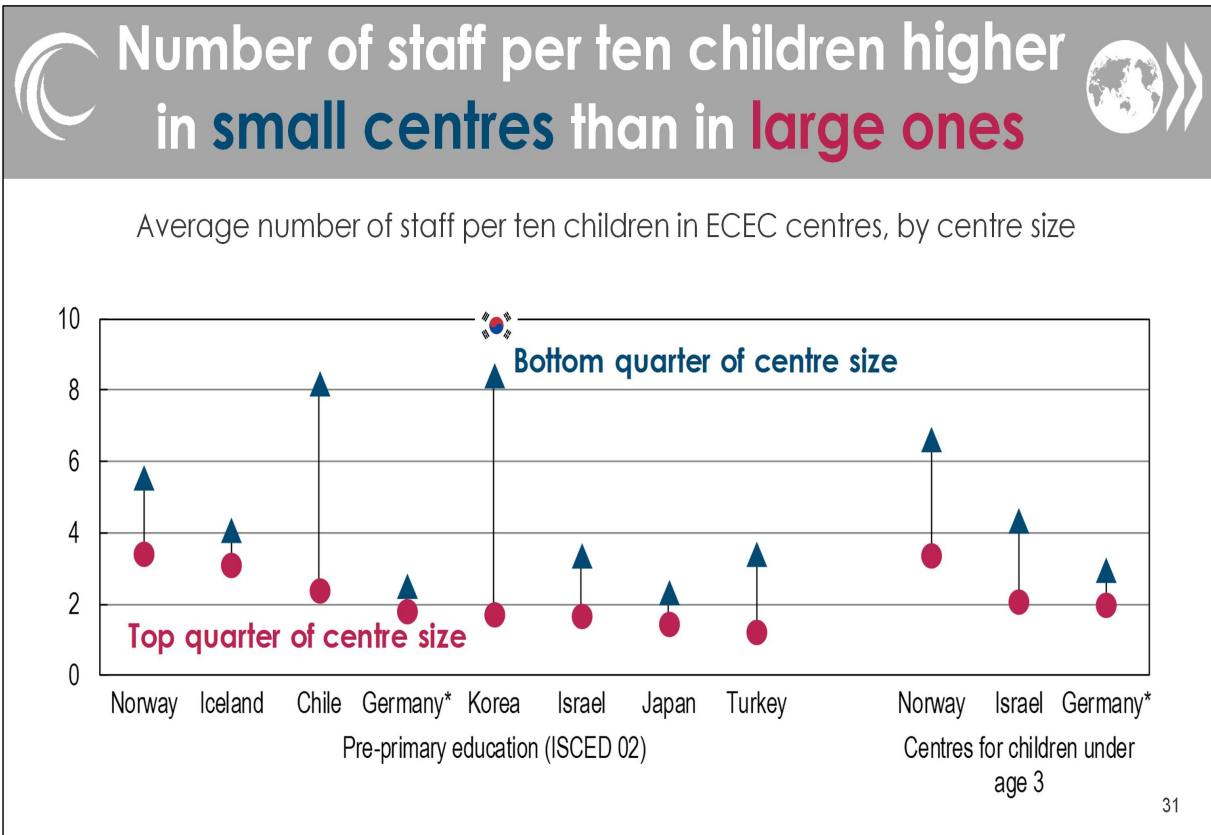


Same percentage of highly educated staff in all participating countries



Same number of staff per 10 children in all participating countries

30



- ### Key findings (summary)
- Practices that facilitate children's **socio-emotional, literacy and numeracy development** are **all used frequently**
 - A large share of **highly educated staff**, who receive **professional development at high rates** (97%)
 - **Low satisfaction with job**
 - **Governmen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reported as **top sources of stress** by staff and a top **barrier to leaders' effectiveness** according to leaders.
 - In most centres, a **low share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working with children with special needs **not** among staff top three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Countries from which Korea could learn




(in blue)

A well-trained workforce and a broad use of practices to support children’s development: **Korea; Norway**

Attract and retain a high quality workforce: **Norway; Israel** and **Turkey** (high satisfaction but low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Governance and leadership: **Germany**, Korea, Israel

A strong start to all children: **Germany, Iceland** and **Norway** (dual language learners); **Chile** and **Turkey** (socio-econ. disadvantaged); **Japan (special needs)**



Questions?

Yuri.Belfali@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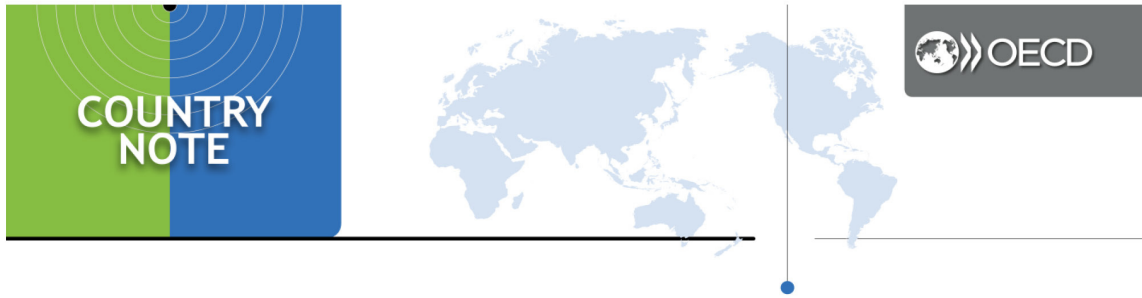
startingstrongsurvey@oecd.org

www.oecd.org/education/school/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htm

* Estimates for sub-groups and estimated differences between sub-groups in the TALIS Starting Strong 2018 data need to be interpreted with care. See Annex B for more information.
 ** Low response rates in the survey may result in biases in the estimates reported and limit the comparability of the data.

This document and any map included herei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The statistical data for Israel are supplied by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Israeli authorities. The use of such data by the OEC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the Golan Heights, East Jerusalem and Israeli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under the terms of international law.

34



RESULTS FROM TALIS STARTING STRONG 2018

The OECD Starting Strong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Starting Strong) is an international large-scale surve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staff and leaders conducted in nine OECD countries. This note presents the findings from the first volume of results on TALIS Starting Strong 2018,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Korea

Key findings

Practices that facilitat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practices that facilitate children’s numeracy development are both used frequently by staff in Korea, suggesting a holistic approach to children’s learning and development.

Compared to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stands out as having a large share of highly educated staff, who receive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t high rates (97%).

Korea is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here the lowest percentage of staff are satisfied with their jobs (79%). At the same time, Korea is similar to other countries in the share of staff who feel valued in society (47%) and although satisfaction with salaries is low (37%), it is among the highest in participating countries.

A large majority of leaders in Korea (78%) report having an inspection regarding process quality at least once every year, which is higher than in most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Leaders report that changing requirements from authorities is their most important source of work-related stress. Government regulation and policy is also reported as a top barrier to their effectiveness according to leaders.

90% of ECEC leaders in Korea – more than in any other participating country – report that their centre provided workshops or courses for parents during the 12 months prior to the Survey.

Korea is the only participating country in which staff do not rank working with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mong their top three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In most centres there is also a low share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ighlight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romote practices that foster children’s learning, development and well-being

TALIS Starting Strong data show that staff with more education and training specifically to work with children report using more practices that can facilitate children’s learning and development in a large range of areas. Compared to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Korea stands out as having a large share of staff with education above secondary level (96%), although the shares of staff having received a practical training (82%) and having been trained specifically to work with children (79%) are somewhat less strong. Leaders are relatively well-educated (87%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The share of staff participating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is nearly universal and higher than the share in other participating countries (97%).

In most participating countries, larger shares of staff report using practices that facilitat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practices that facilitate children's numeracy development. In Korea, the gap between these different practices is relatively small. However, when ranking the importance of abilities or skills to prepare children for life in the future, staff in Korea attribute less importance to numeracy skills compared to staff in other countries, while attributing high importance to children's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

On average in Korea, staff work with groups of 16 children. This is similar to the average group size in several other countries. More than half of staff (51%) indicate that having too many children in the group is an important source of stress. Staff in Korea who feel more stress related to the size of their groups also report using more group management strategies (e.g. calming children) compared to staff in Korea who feel less of this stress.

Practices for engaging parents/guardians (e.g. providing workshops or informing parents about daily activities) are common across countries and particularly in Korea. Staff in Korea report high rates of training on working with parents/guardians and families, both through their formal education and as part of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90% of ECEC leaders in Korea – more than in any other participating country – report that their centre provided workshops or courses for parents during the 12 months prior to the Survey.

Korea has a low share of leaders who report that their centre is in communication with primary school teachers (40%)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However, training on facilitating children's transitions is relatively common in staff formal education (72%) and is also covered for a moderate share of staff in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40%).

Attract and retain a high-quality workforce

Korea is one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here the lowest percentage of staff are satisfied with their jobs (79%). At the same time, Korea is similar to other countries in the share of staff who report feeling valued in society (47%) and although satisfaction with their salaries is overall low (37%), it is among the highest in participating countries. In line with these findings, improving salaries is indicated as a top spending priority by staff. Korea also has a low share of permanent contracts for staff (24%).

Professional development can help staff keep motivated at their job but can also facilitate career progression. In Korea, despite widespread participation in ongoing professional development, large shares of staff indicate that a lack of staff to compensate for absences is a barrier to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88%). Other common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development reported by staff in Korea include a conflict with their work schedule and a lack of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Give a strong start to all children

Most centres in Korea include a moderate share of children from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mes, although publicly managed centres serve more children from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homes than privately managed centres. Staff report having received training to work with children from diverse backgrounds at moderate rat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imilarly, Korea is around the middle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in terms of the percentages of staff who report using practices on diversity (such as through the use of books and toys).

In contrast, in most centres there is a low share of children whose first language is different from the language(s) used in the centre and a low share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taff also report having received training to work with dual/second language learners and with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t moderate rat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 is the only participating country in which staff do not rank working with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s among their top three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Ensure smart spending in view of complex governance and service provision

A moderate to large percentage of leaders indicate having responsibilities for the budget allocation within the centre and the appointment and recruitment of staff. More than three-quarters of leaders indicate receiving inspections regarding process quality at least once every year, more than in most other countries.

Changing requirements from authorities and a lack of support from local authorities are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work-related stress for leaders in Korea. Along these same lines, government regulation and policy is the top barrier to their effectiveness according to leaders.

How does Korea compare?



Note: * Estimates for sub-groups and estimated differences between sub-groups in the TALIS Starting Strong 2018 data need to be interpreted with care.
 Source: TALIS Starting Strong 2018 database.

Policy pointers for Korea

- Include a work-based learning component in all pre-service ECEC programmes.
- Review ECEC staff financial packages to ensure that they can attract and maintain a high-quality workforce in the sector.
- Engage in dialogue with ECEC professionals to identify sources of work stress and develop strategies to alleviate them.
- Ensure consistent quality across public and private ECEC centres and support access to both types of settings for all families.
- Ensure that policies and regulations do not create an excessive burden to leaders that prevent them from exerting the various aspects of leadership.

What is TALIS Starting Strong and how does it apply in Korea?

TALIS Starting Strong is an international, large-scale survey of staff and lead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TALIS Starting Strong uses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staff and leaders to gather data. Its main goal is to generate robus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levant to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cused on ECEC staff and leaders and their pedagogical and professional practices, with an emphasis on those aspects that promote conditions for children's learning, development and well-being. TALIS Starting Strong data are based exclusively on self-reports from ECEC staff and leaders and, therefore, represent their opinions, perceptions, beliefs and accounts of their activities.

TALIS Starting Strong 2018 includes nine countries: Chile, Denmark, Germany, Iceland, Israel, Japan, Korea, Norway and Turkey. All of these countries collected data from staff and leaders in pre-primary education (ISCED level 02) settings typically serving children aged 3 to 5. In addition, four of the nine countries (Denmark, Germany, Israel and Norway) collected data from staff and leaders in settings serving children under age 3. Only data on centre-based provision are reported in the first report volume and this country note.

The Survey aims to obtain a representative sample in each participating country of staff and leaders for each level of ECEC in which the country participated. In Korea, 927 staff members and 188 leaders in pre-primary education (ISCED level 02) settings completed the TALIS Starting Strong questionnaires.

TALIS Starting Strong covers the following ECEC settings in Korea: kindergartens for children aged 3-5 and childcare centres for children aged 0-5.

This work is publish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ECD. The opinions expressed and arguments employed herein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views of OECD member countries.


This document, as well as any data and any map included herei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or sovereignty over any territory, to the delimitation of international frontiers and boundaries and to the name of any territory, city or area.

Note regarding data from Israel: The statistical data for Israel are supplied by a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relevant Israeli authorities. The use of such data by the OECD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the Golan Heights, East Jerusalem and Israeli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under the terms of international law.

References

OECD (2019),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sults from the Starting Strong Survey 2018*, TALI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01005d1-en>.

For more information on TALIS Starting Strong 2018 visit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oecd-starting-strong-teaching-and-learning-international-survey.htm>.

Data can be found also on line by following the **StatLinks**  under the tables and charts in the pub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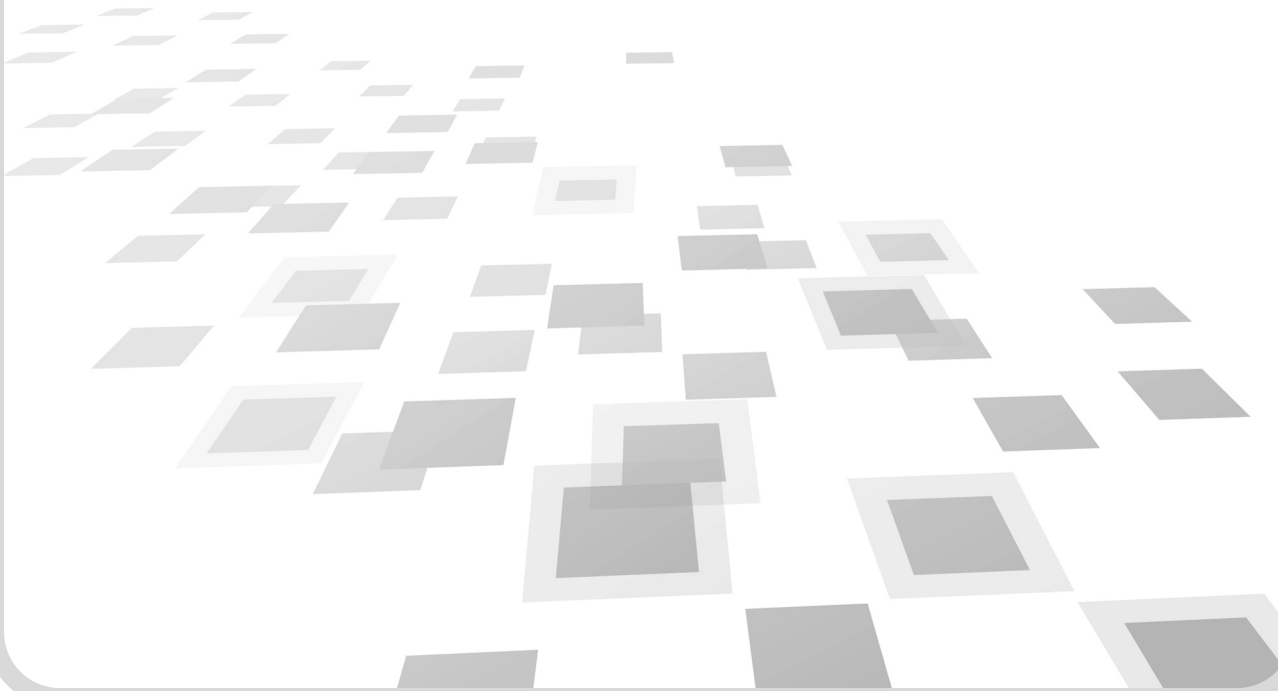
Explore, compare and visualise more data and analysis using: <http://gpseducation.oecd.org/>.

Questions can be directed to: TALIS Starting Strong team,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StartingStrongSurvey@oecd.org

주제발표2

TALIS Starting Strong 한국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김은설 TALIS 3S 한국 연구책임, OECD ECEC Network
국가조정관/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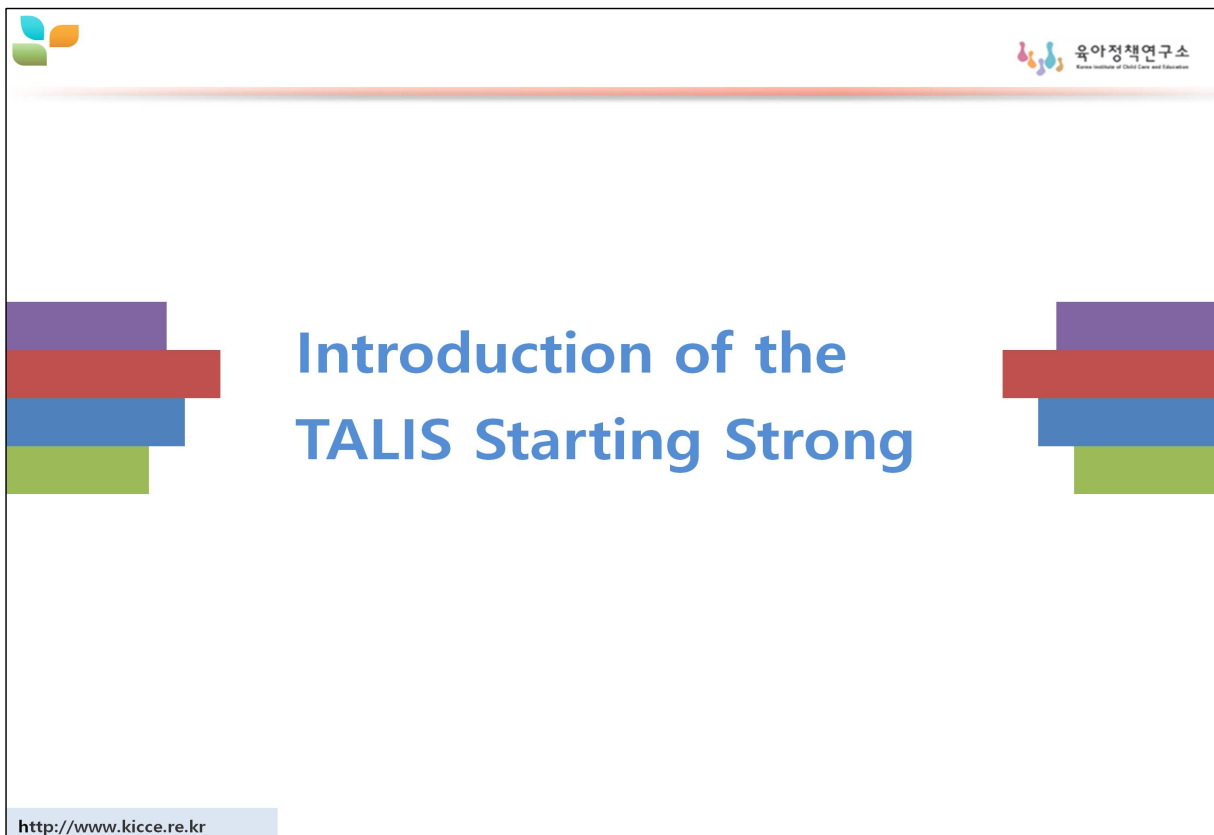


The cover page features a large graphic on the left with three stylized leaves in blue, orange, and green. Below the leaves is a photograph of a family (a man, a woman, and two children) smiling. The title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in Korea' is centered in a large, bold, black font. Below the title, the names and roles of the researchers are listed: Eunseol Kim (NPM of Korean TALIS 3S), Jinah park (NDM of Korean TALIS 3S), and Sol Me Lee (Researcher, Korean TALIS 3S Team).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logo for the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with the text '육아정책연구소' and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in Korea

Eunseol Kim(NPM of Korean TALIS 3S)
Jinah park(NDM of Korean TALIS 3S)
Sol Me Lee(Researcher, Korean TALIS 3S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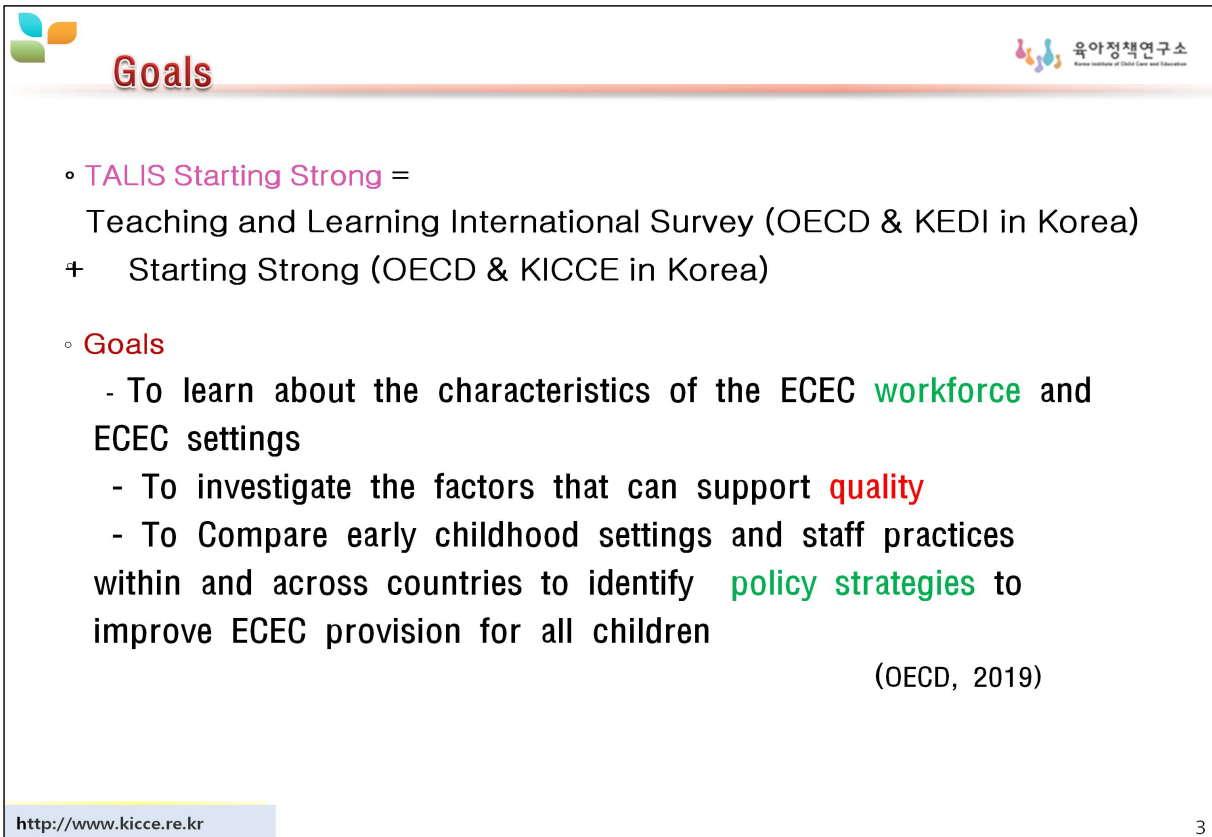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slide features a horizontal line at the top with a small KICCE logo on the left and right. The title 'Introduction of the TALIS Starting Strong' is centered in a large, blue font. Below the title, there are decorative horizontal bars in purple, red, blue, and green on both sides.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URL: 'http://www.kicce.re.kr'.

Introduction of the TALIS Starting Strong

<http://www.kicce.re.kr>



Goals

• **TALIS Starting Strong** =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OECD & KEDI in Korea)
+ Starting Strong (OECD & KICC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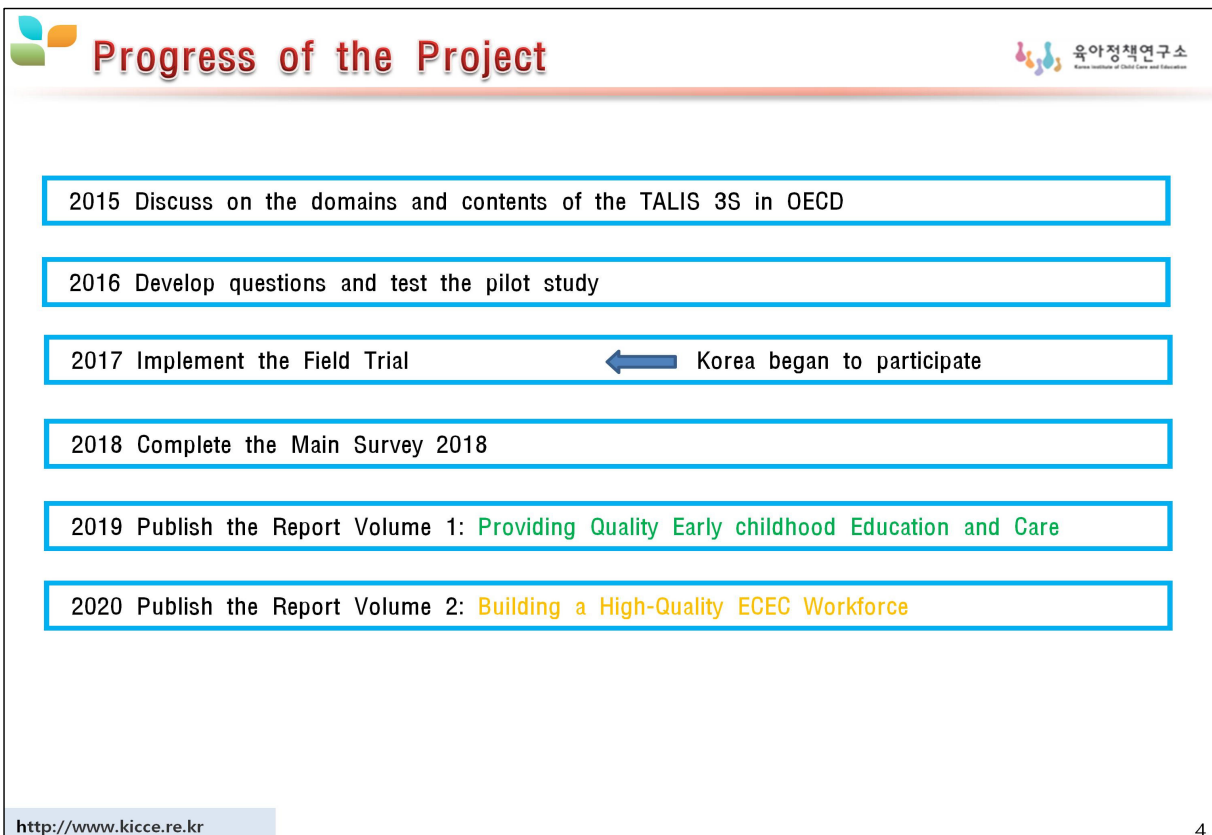
• **Goals**

- To lear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EC **workforce** and ECEC settings
-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can support **quality**
- To Compare early childhood settings and staff practices within and across countries to identify **policy strategies** to improve ECEC provision for all children

(OECD, 2019)

<http://www.kicce.re.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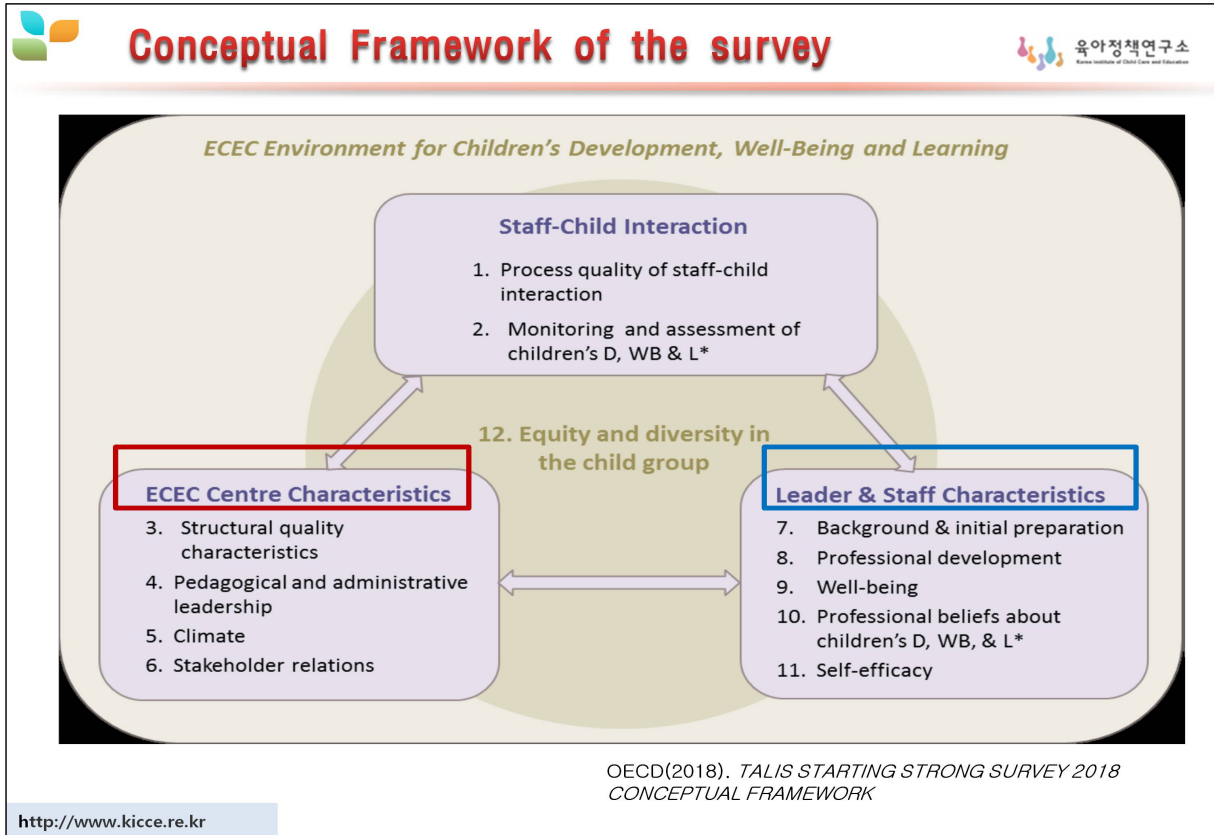


Progress of the Project

- 2015 Discuss on the domains and contents of the TALIS 3S in OECD
- 2016 Develop questions and test the pilot study
- 2017 Implement the Field Trial ← Korea began to participate
- 2018 Complete the Main Survey 2018
- 2019 Publish the Report Volume 1: **Providing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2020 Publish the Report Volume 2: **Building a High-Quality ECEC Workforce**

<http://www.kicce.re.kr>


4



Results from the TALIS Starting Strong in Korea

<http://www.kicce.re.kr>

Participants and Method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Participants (age 3–5 ECEC)

	leader	teacher	Total
Total	190	927	1,117
Kindergarten	85	476	561
Public	24	94	116
Private	61	382	443
Childcare center	105	451	556
Public	45	244	289
Private	60	207	267
Area size			
Big city	77	443	520
Middle city	76	377	453
Rural area	37	107	144


◦ Method: On-line Web Questionnaire

◦ Period: 2018. 6 ~ 2018. 11 (76% Target response rate)

◦ The purpose of our own analysis of Korean data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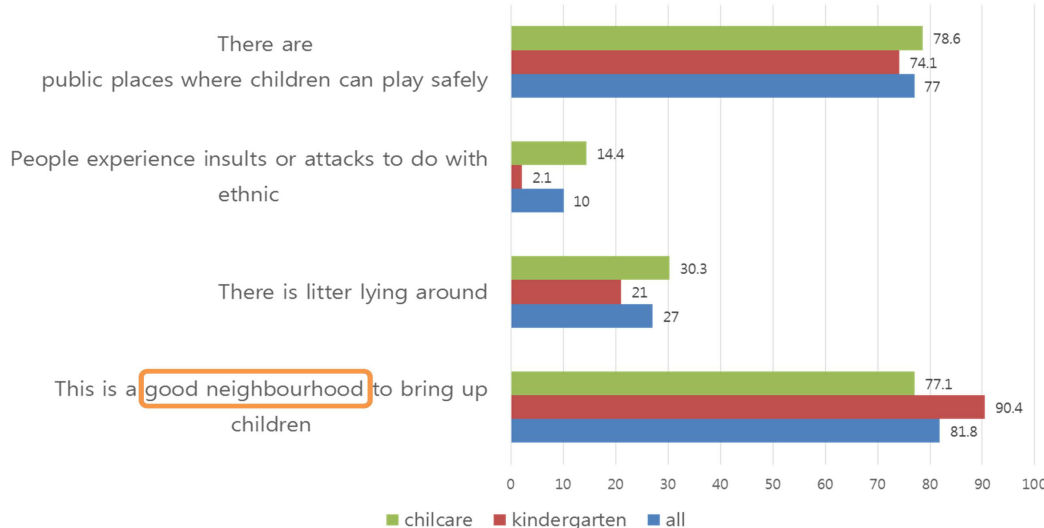
<http://www.kicce.re.kr> 7

ECEC Center Characteristics: Structural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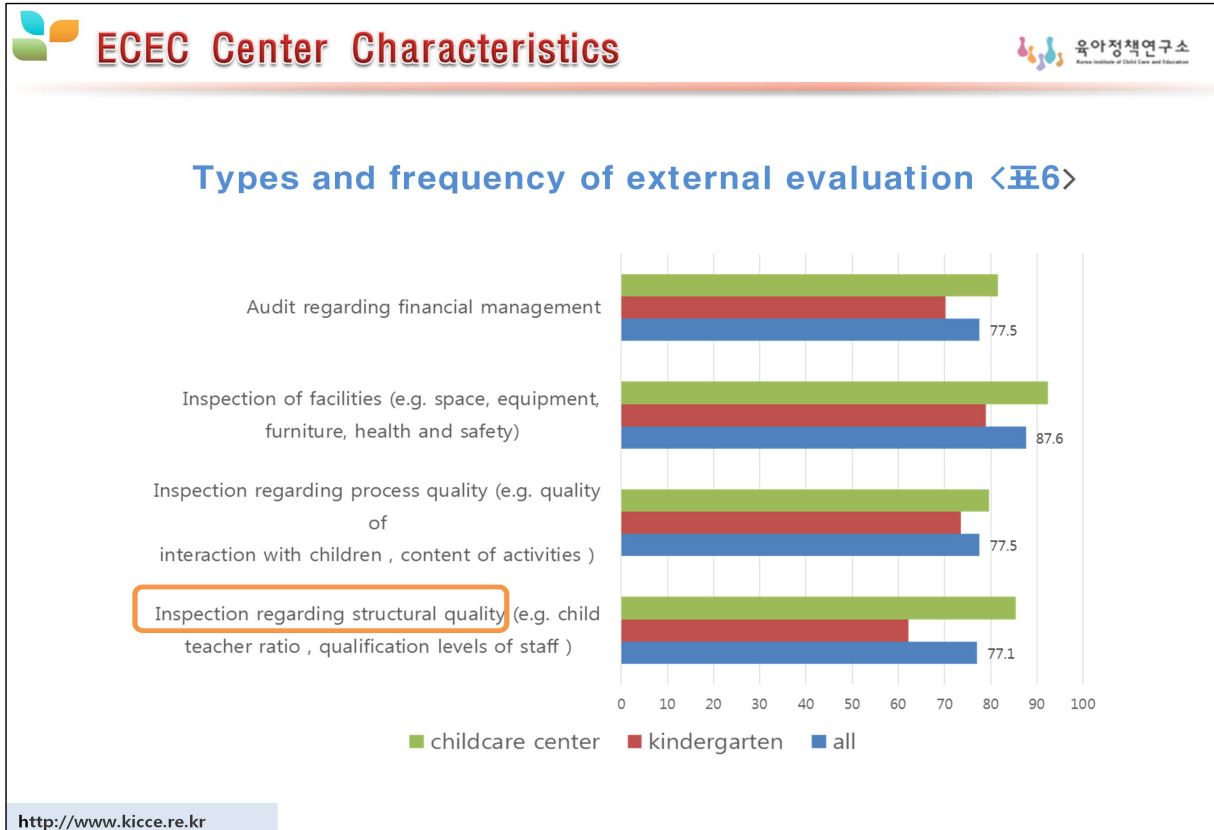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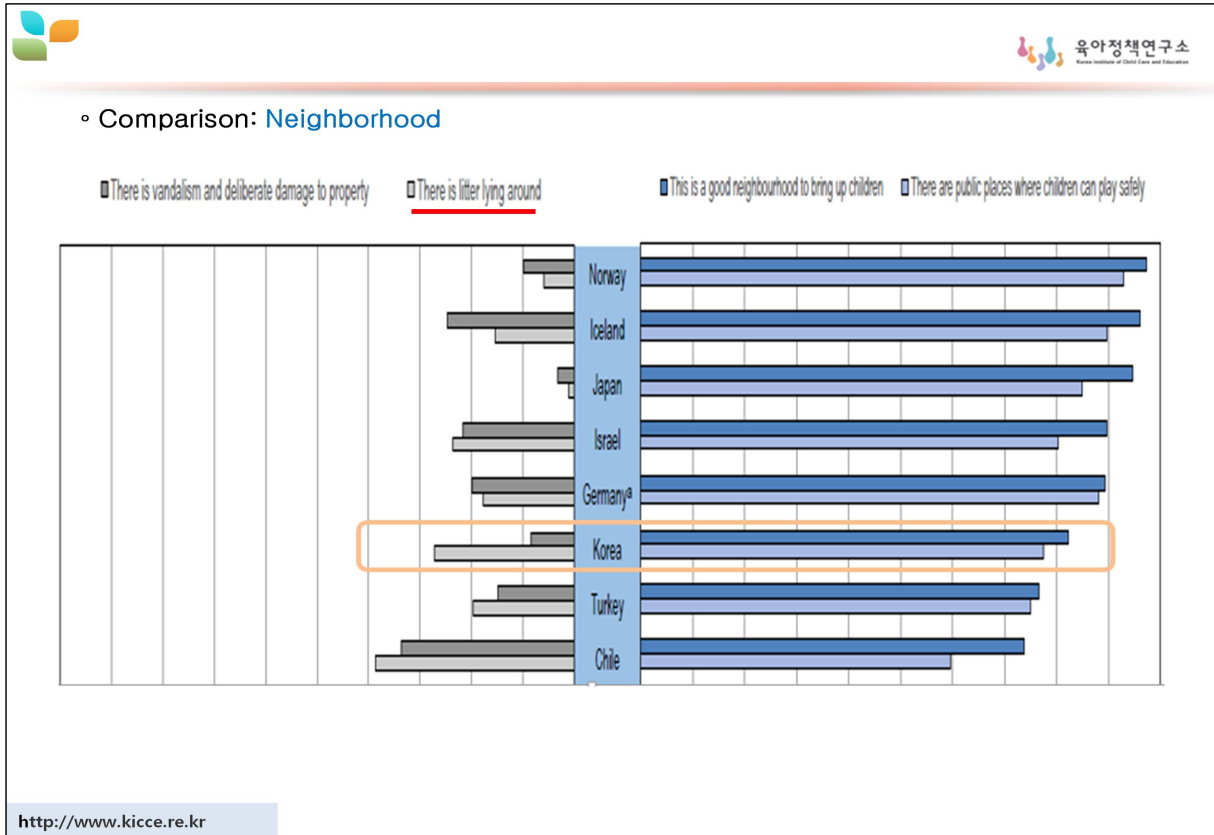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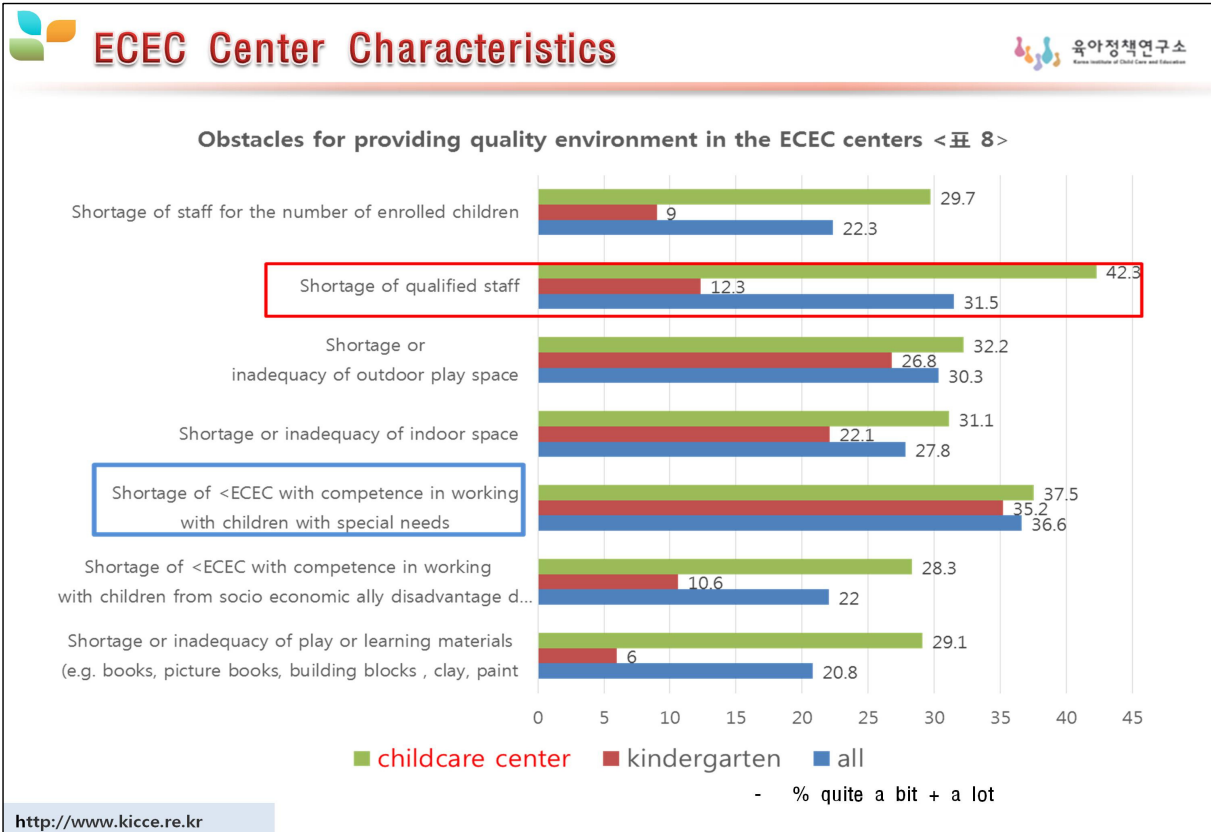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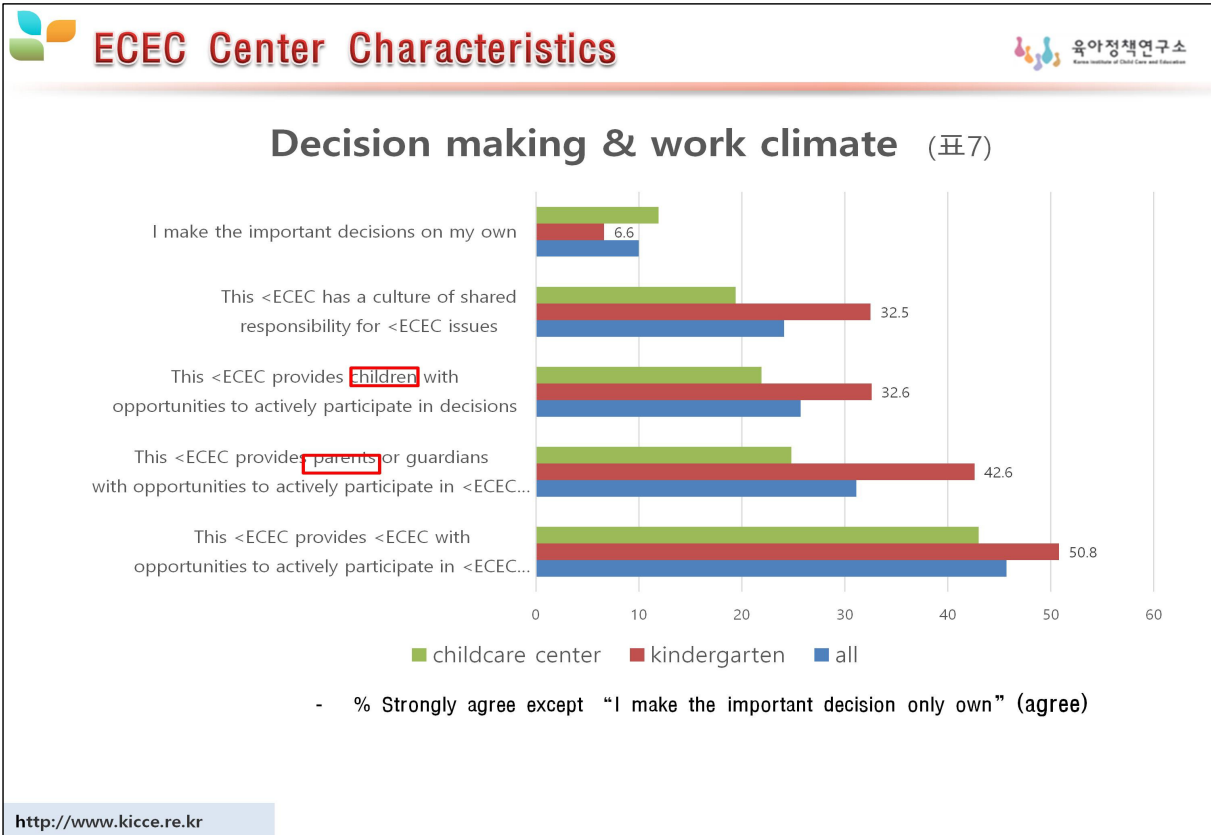
Neighborhood < 표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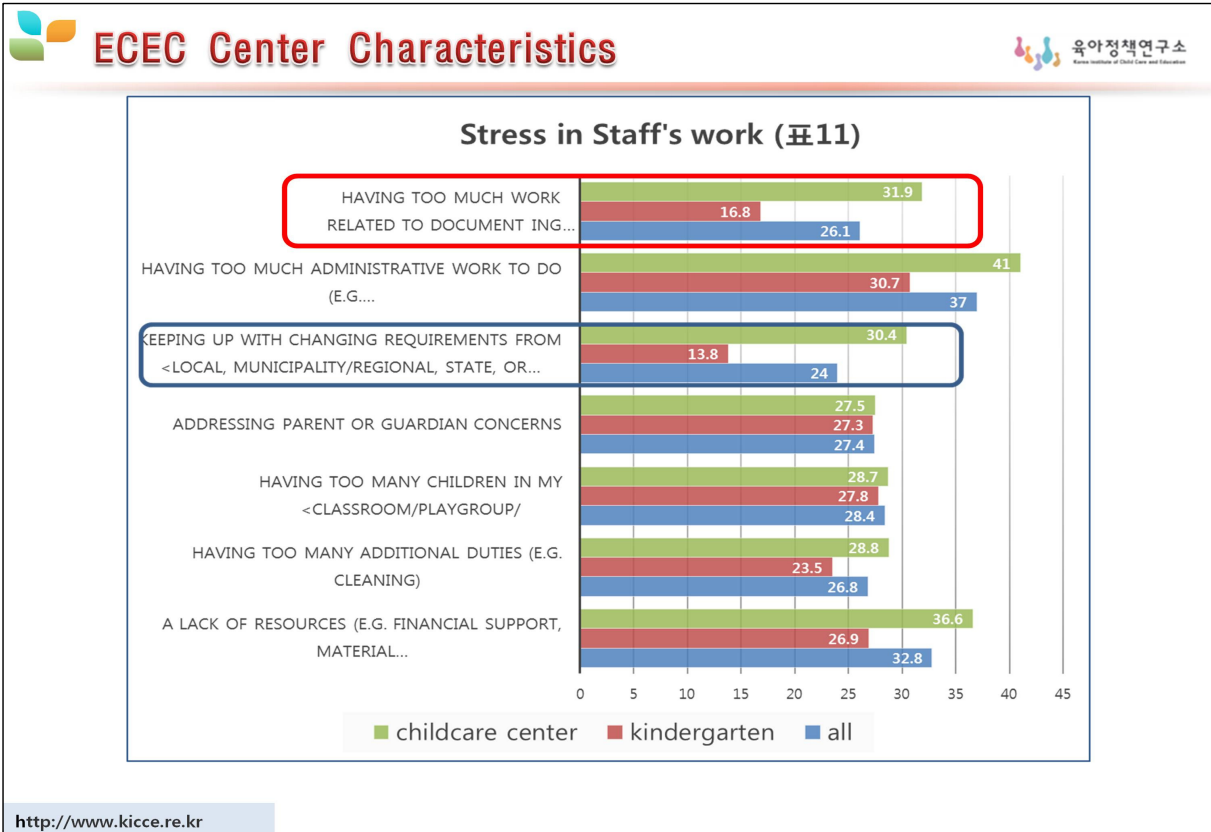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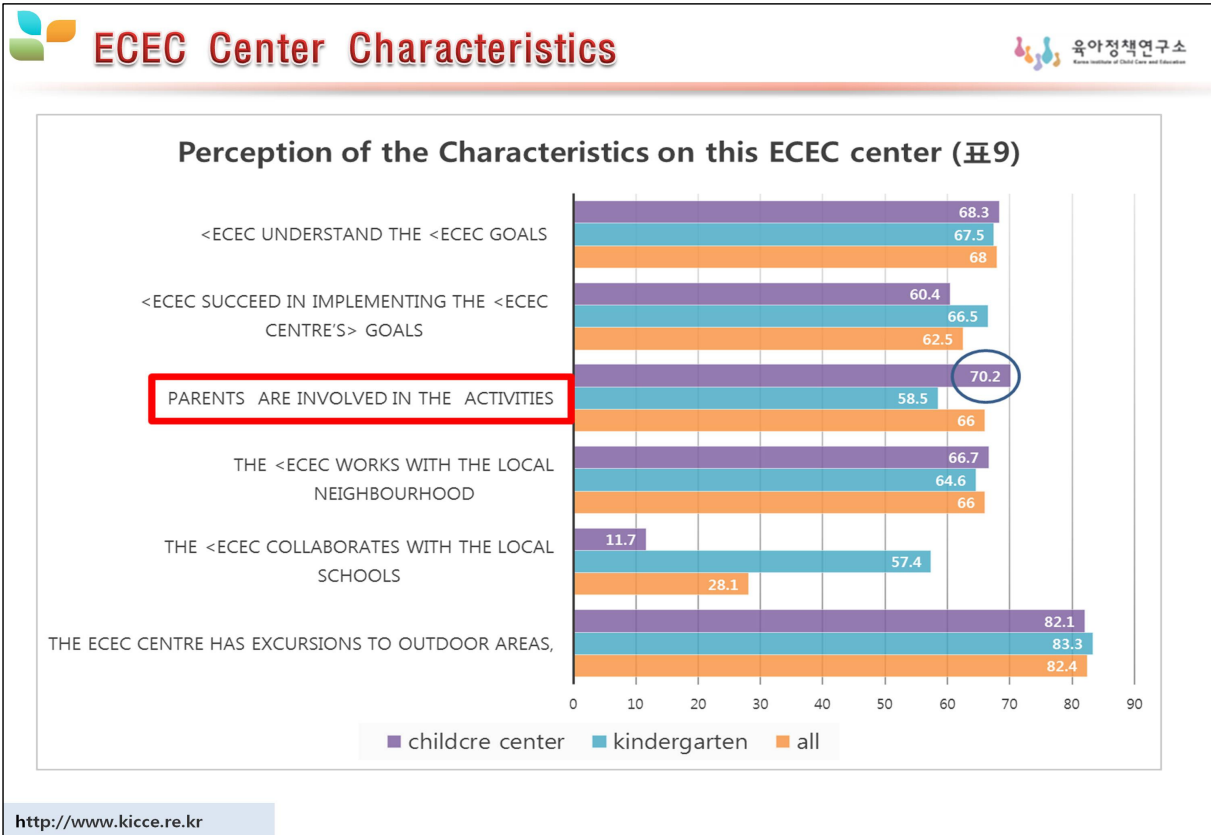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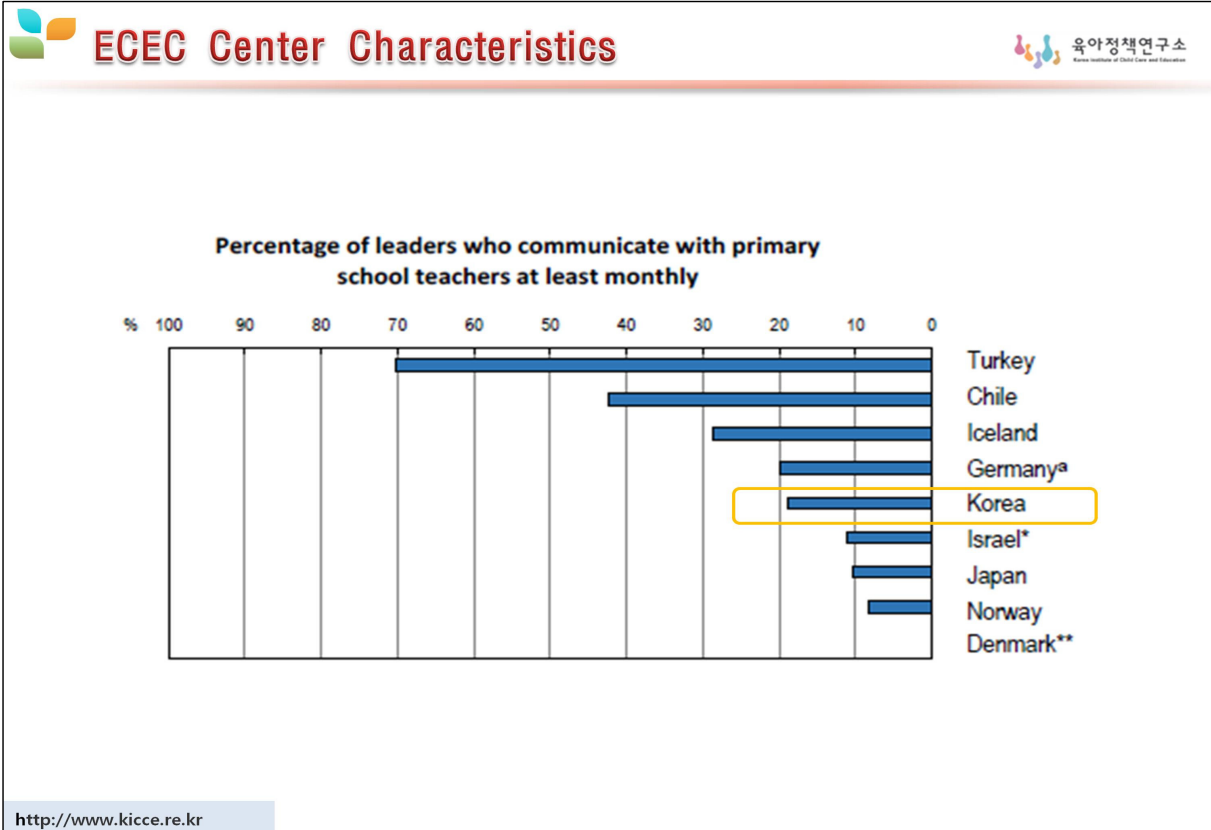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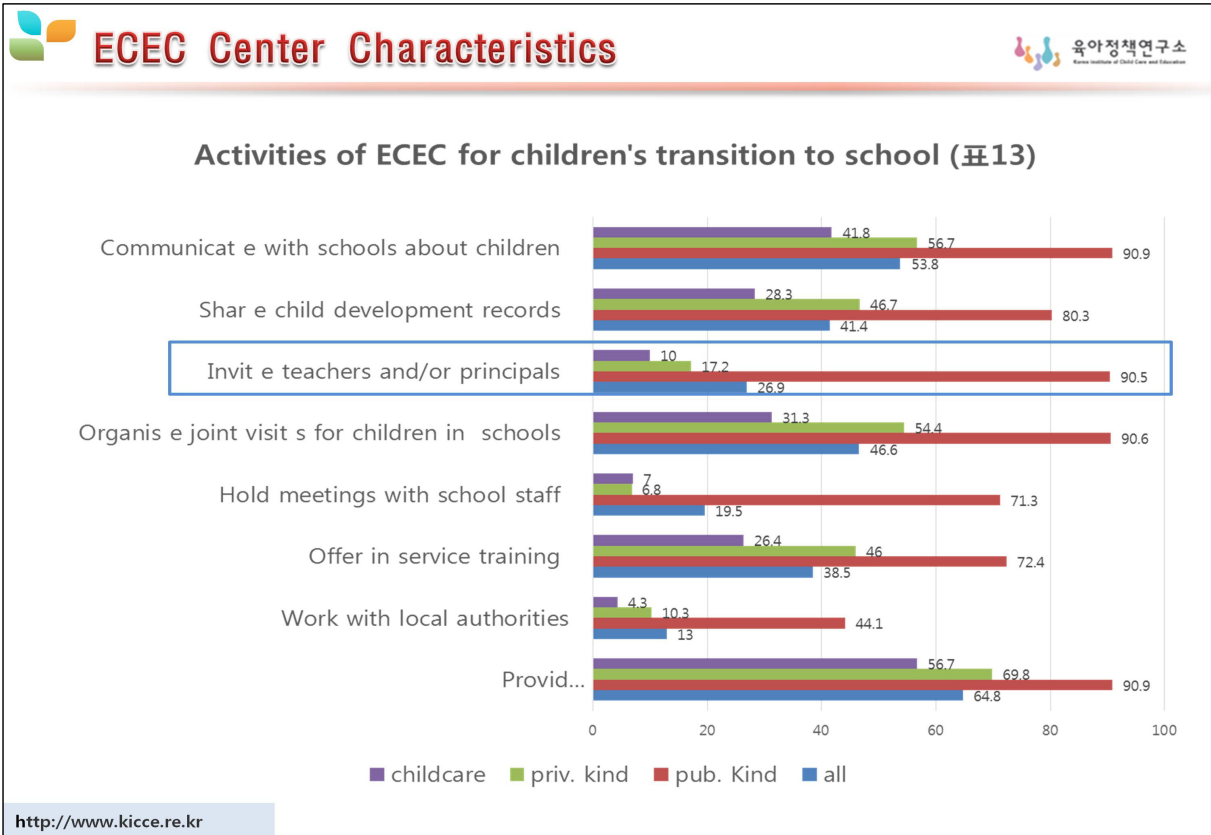
Statement	chilcare	kindergarten	all
There are public places where children can play safely	78.6	74.1	77
People experience insults or attacks to do with ethnic	14.4	2.1	10
There is litter lying around	30.3	21	27
This is a good neighbourhood to bring up children	77.1	90.4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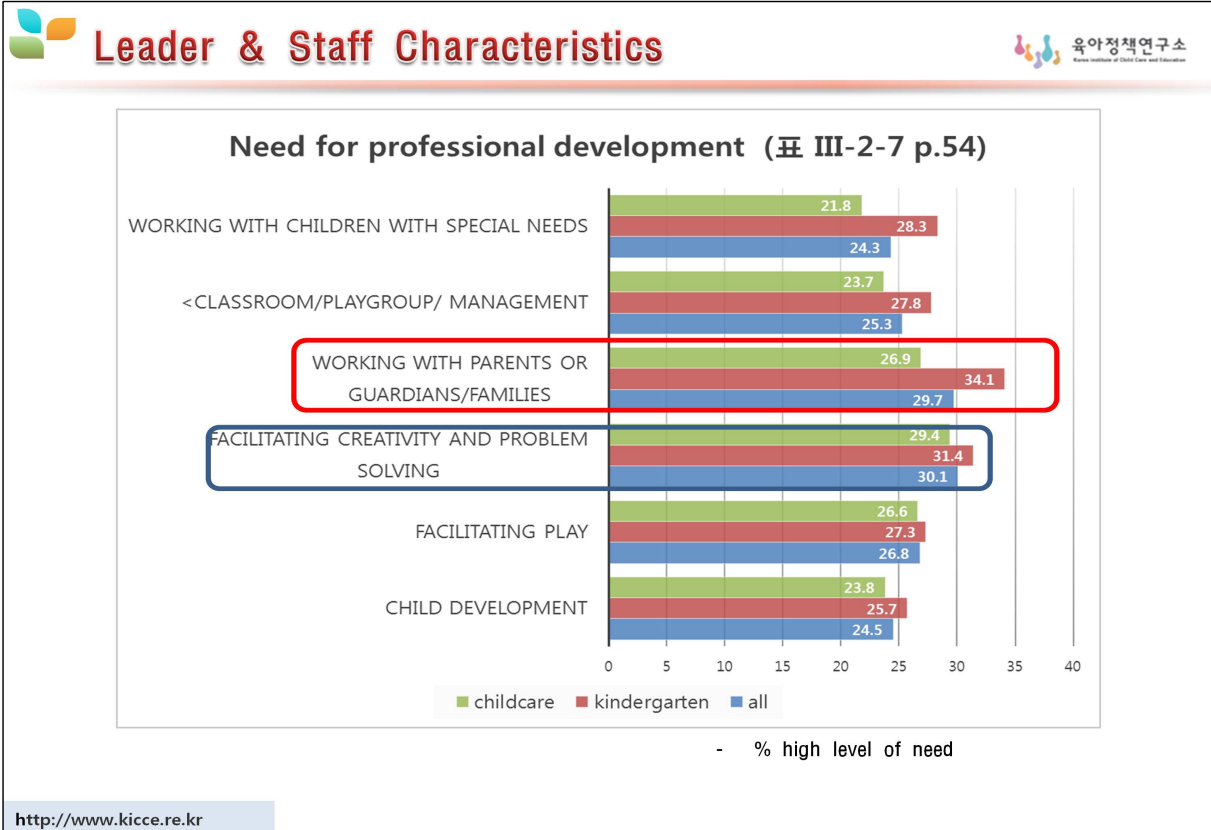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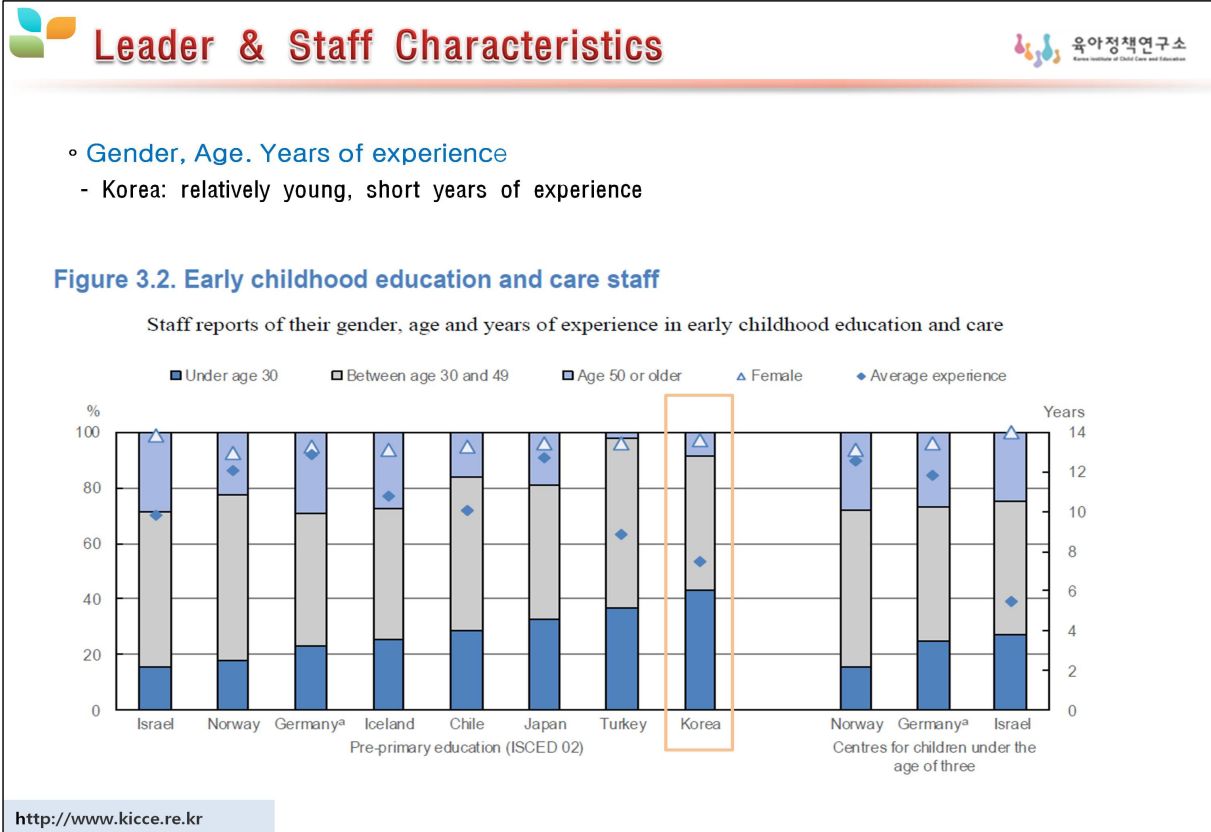
<http://www.kicce.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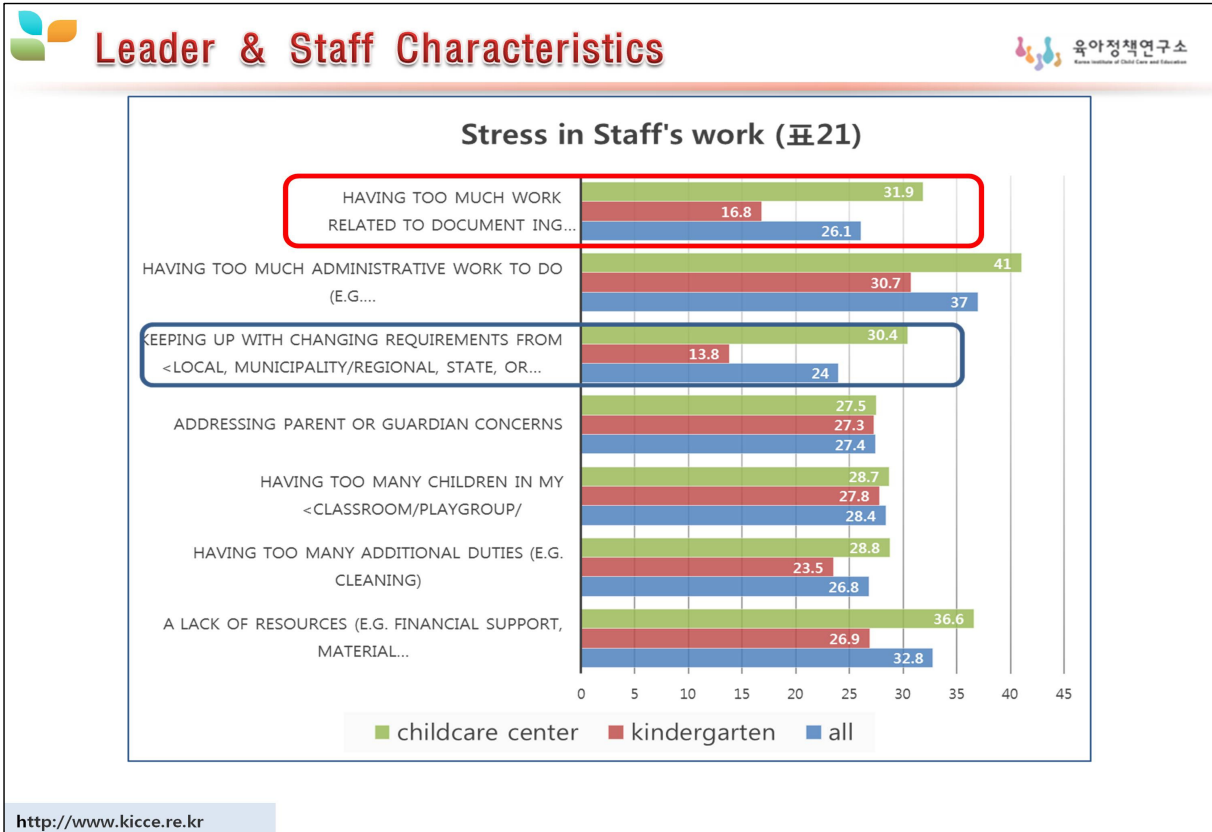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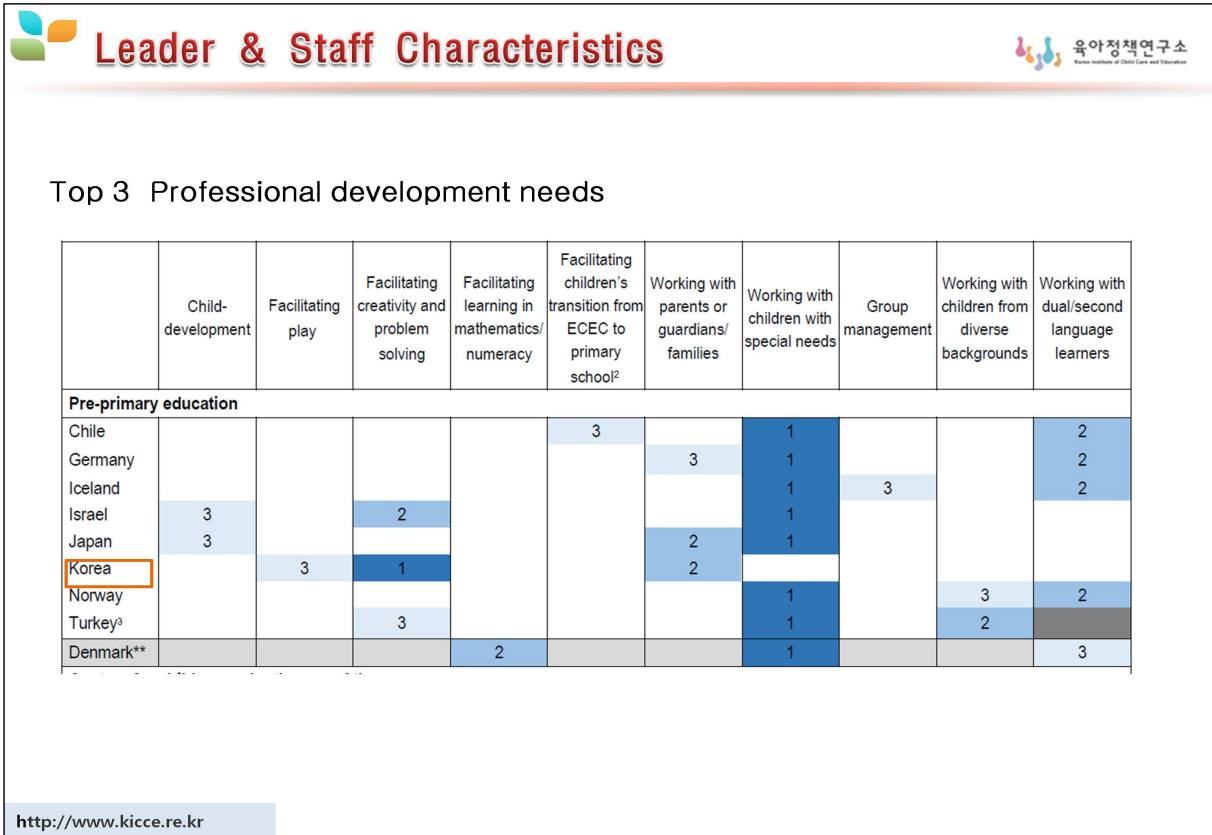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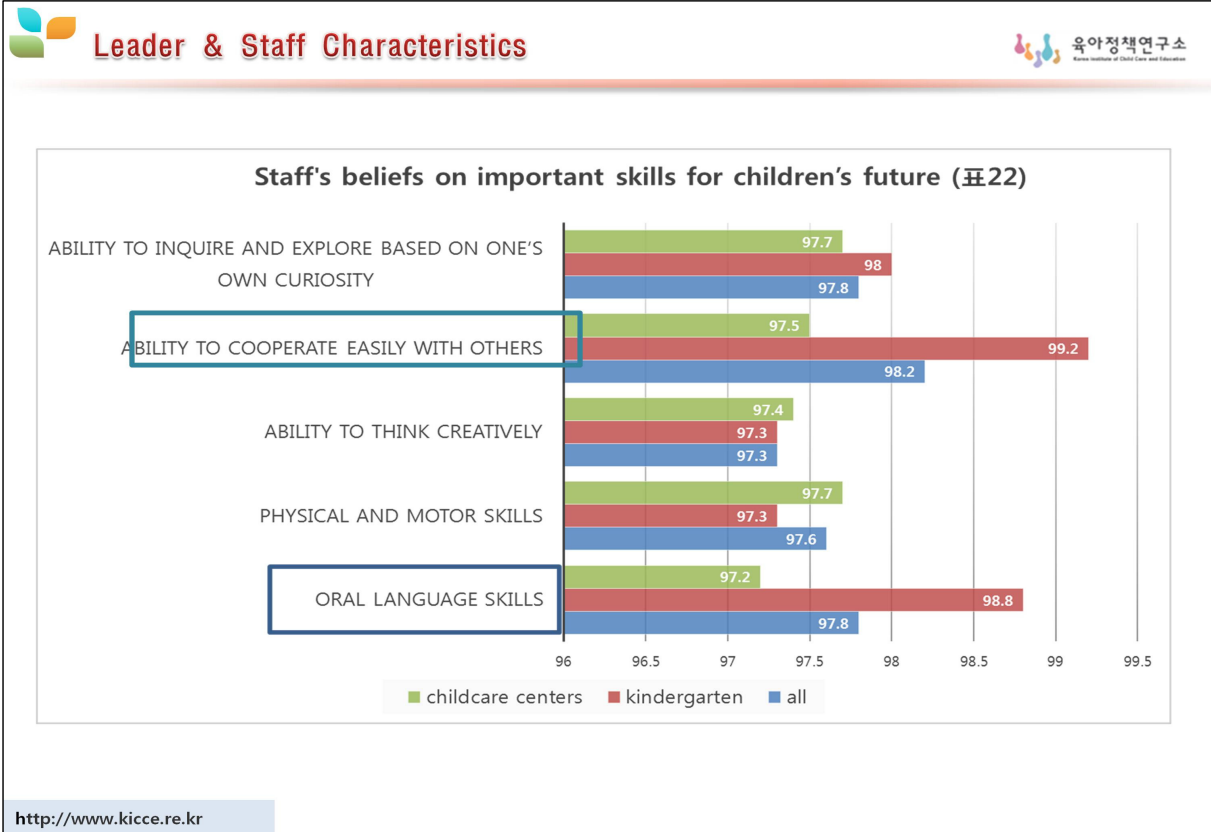













Leader & Staff Characteristics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op 3 abilities or skills in children for the future life

	Children's oral language skills	Children's physical and motor skills (e.g. physical exercises, dancing, playing musical instruments)	Children's ability to think creatively	Children's ability to cooperate easily with others	Children's ability to inquire and explore based on one's own curiosity
Pre-primary education (ISCED 02)					
Chile	1		3	2	
Denmark**	2			1	3
Germany	1	3			2
Iceland	2		3	1	
Israel	2		3	1	
Japan	3			1	2
Korea			3	1	2
Norway	2			1	3
Turkey	2		1		3
Centre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Denmark**	1			2	3
Germany	1			3	2
Israel	2	3		1	
Norway	2			1	3



Note:
 a. Estimates for sub-groups and estimated differences between sub-groups need to be interpreted with care. See Annex XX for more information.
 **Low response rates in the survey may result in biases in the estimates reported and limit the comparability of the data.
 Source: TALIS Starting Strong 2018 database (Table BMUL.ROLE.SKILLS).

<http://www.kicce.re.kr>



Finding from the results of Korean TALIS Starting Str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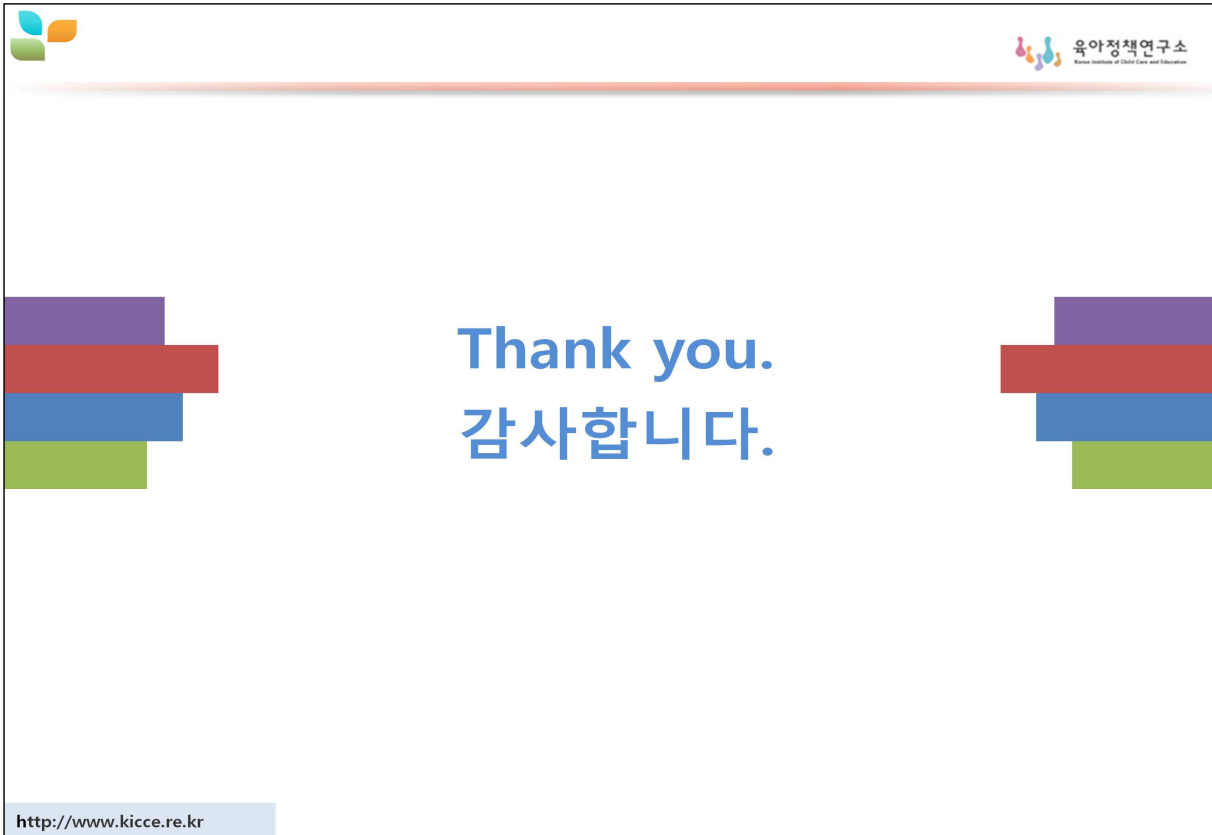
<http://www.kicce.re.kr>



Findings focused on structural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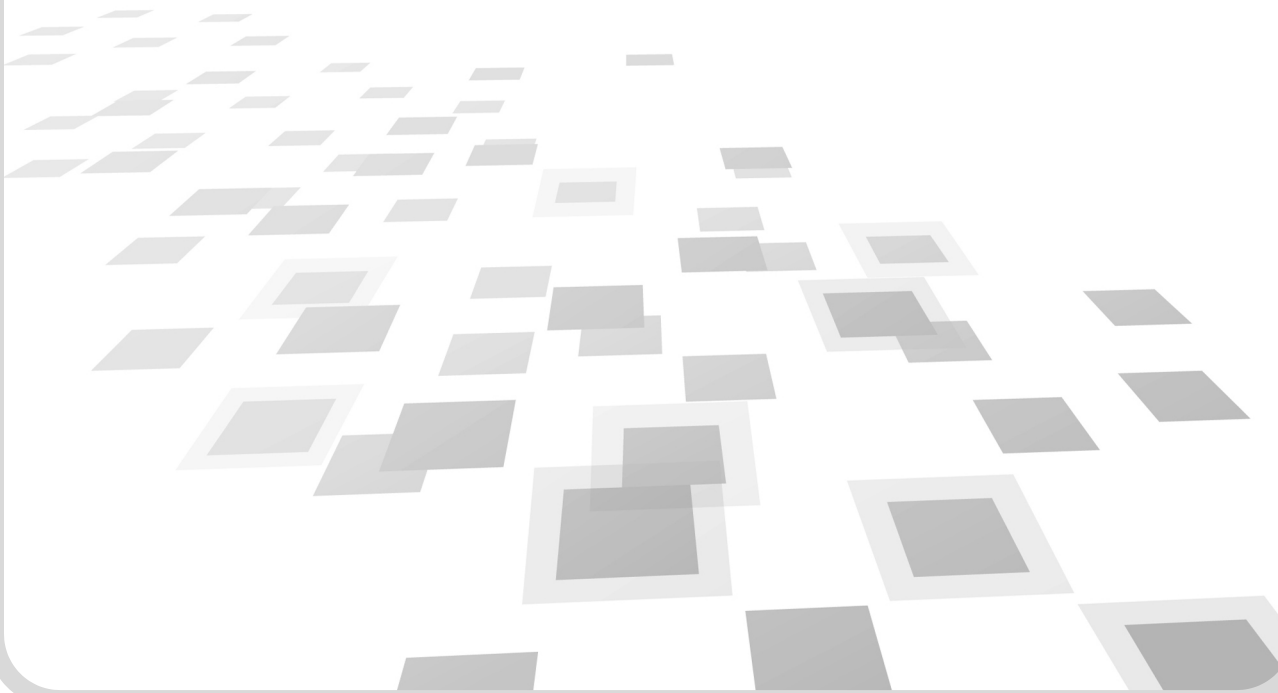
1. Staff, parents, and children's insufficient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f the ECEC Centers
2. Shortage of qualified staff (Childcare centers)
3. Shortage of staff's competence in working w/ children with special need
4. Shortage of activities for transition to the primary school
5. Too much work related to document/ Keeping up with changing requirements from authorities
6. Unstable status with staff's job → top level of staff's young age in the international data
7. Big burden in working with parents and nee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his work
8. Big emphasis on play & creativity → staff's need for additional training, perception on skills of children for the future

<http://www.kicce.re.kr>



토론

- 박은혜 | OMEP 세계유아교육기구 세계회장/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이승하 |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총무이사/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최윤경 | TALIS 3S 한국 전 연구책임/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



토 론 3

TALIS Starting Strong 한국 조사 결과와 OECD 제언의 함의

최윤경 | TALIS 3S 한국 전 연구책임/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초중등 학생의 학업성취 등 구체적 성과와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OECD의 TALIS와 PISA 연구는 그 간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공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요한 정책적 함의와 이슈를 선도해왔다. 생애초기 누적적 영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취학전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의 투자와 국가수준의 정책 설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OECD는 TALIS Starting Strong의 이름으로 영유아교원에 대한 데이터 산출과 이에 대한 첫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다. 조사결과가 공표되고 OECD 보고서의 정책 제언이 제시되면, TALIS 3S에 참여한 국가는 물론이고 이번 1차 회기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에도 영유아 대상 교원 및 교육보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형 국제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업무와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국내외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고에서 공개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이번 TALIS Starting Strong Survey의 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TALIS 3S는 4개의 주제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기관과 교원의 특성 외에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에 관한 '과정적 질'과 '다양성', '형평성'을 중요한 주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 이러한 영역과 변인들 간의 관계가 교원의 전문성과 페다고지, 실행, 효능감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학적 개념 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간 영유아 교육보육 및 교원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구조적 요건(구조적 질과 요인: 교사의 학력, 기관규모 등) 외에 교원의 신념과 동기,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전문성 개발의 기회, 스트레스, 효능감, 그리고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변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요구를 갖는 아동과 다문화 및 취약한 배경을 갖는 아동에 대한 교사의 준비도와 민감도 등 인식과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향후 축적됨에 따라 미래에 국내외 영유아 교육보육 및 교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교사들은 9개 참여국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교사 대상의 현직교육과 훈련의 내용 구성이 다양하며 교육 이수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위주의 실습 교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교사들의 전반적인 직업만족도는 참여국 중에서 가장 낮았

다. 그 가운데에서도 급여만족도가 가장 낮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 교사들의 급여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여기에는 유아 지도 및 행동관리와 부모 응대, 그리고 행정사무와 서류 업무, 많은 유아 수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고 본인의 업무를 되돌아보는 반성적 시간이 부족하며,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전문성 개발에서 유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촉진, 부모와의 협력, 놀이 촉진, 학급/그룹 운영, 그리고 다문화/장애/취약계층 아동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여국과 비교하여 한국 유아 교원의 다문화/장애/취약계층 아동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필요도가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본 결과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유아와 부모는 유아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존중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유아교사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떨어지는 부분은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남는다. 특히 초등학교로의 전이와 유초 연계에서 한국이 참여국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 전이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 OECD 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책이 가져오는 업무와 제약이 교사의 실제 수행과 행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 흥미에 맞는 교수 학습 전략을 약화시키고, 교사들이 유아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동양식을 취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매우 타당한 가설로 보여지며 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및 교원 정책이 가져가야 할 숙제이다.

한국의 원장들도 학력 수준이 높고 높은 교육훈련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부 평가와 모니터링이 (특히 어린이집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규제에 의한 어려움과 리더십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OECD의 권고와 의견이 눈에 띈다. 한편 기관의 구조적 질과 특성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진은 상호작용과 유아교육에 대한 강조점 인식 등과 같은 과정적 질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교사의 연령에서 한국은 30세미만의 연령 비율이 참여국 중에 가장 많았으며, 경력 연한은 짧았다. 이는 교사의 계약조건에도 반영되어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한국의 현황이 드러나 있다. 교사 정책을 구성하는 많은 주요 요건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교사의 업무와 전문성 신장에 기제가 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향후 영유아 교원 정책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중되는 문화적 환경 내에서 안정된 계약조건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급여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여건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갖추어지면,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흥미와 필요에 맞는 양질의 폐다고지와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유아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놀이에 맞춰 아동의 발달과 웰빙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정적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이 가져오는 규제와 지침의 변화가 주는 제약과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의 정책과 교사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큰 숙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고 전달하는 방식과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애초 정책이 목표로 하고 지향하던 가치는 실현되지 않는다. 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와 지침의 방식을 취하는 것 외에 현장의 자율과 동기에 의해 구동될 수 있는 과정적 전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한국의 교원은 우수하고 정책적 설계가 잘 되어있으나, 이것이 아동의 학습과 웰빙, 우수한 교사의 근속과 전문성 있는 페даго지와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연결고리의 부재를 확인하였으므로, 이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의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국가 간 그리고 한국의 유아 교원에 대한 데이터는 많은 질문과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데이터를 보고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슈와 어젠더를 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드러난 차이가 얼마나 진정한 차이이고 다름의 결과인지, 어떠한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맥락의 특성에 의해 발생된 유의한 격차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결과로서 나타난 수치의 높고 낮은 수준에 대한 해석이 민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회기에 9개국이 참여한 TALIS Starting Strong 데이터의 함의와 중요도가 매우 크며, 이러한 증거 기반의 국제 프로젝트에 의한 권고는 우리의 정책 방향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